

원불교 훈련의 활성화 방안

– 교화단 법회는 훈련이다 –

태방 6단 출가교화단

(훈련프로그램개발 특성단)

조명규, 이연길, 백광문, 임진은, 안세명
이정일, 장진수, 전상현, 이대진, 박인전

1. 들어가며

원불교의 훈련은 소태산 대종사(1891~1943)의 대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첫 구현은 십인일단의 단조직을 통해서 진행된다. 삼순일 예회는 곧 단원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단회의 모습이었고, 성계명시독은 단장이 단원들의 신성과 공부를 점검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상시훈련의 공부 방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당시 단원들이 공부의 결과는 곧 영산시대의 창립활동으로 결실을 맺었다. 단원들은 상시훈련을 통해 십인일심(十人一心)이 되었고, 저축조합, 영산방언, 단원기도, 법인성사 등을 통해 이사병행, 영육쌍전의 모델을 몸소 실현해보였다. 변산 시대에도 단조직의 시도가 없지 않았으며, 아울러 예비훈련이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익산 시대에 이르러 단조직과 단활동이 본격화된다.

삼육일 예회(6, 16, 26일)는 그야말로 지역의 모든 단원들이 함께 하는 정례집회였다. 단원들이 함께 보면 예회가 되었고, 단별로 진행하면 단회였다. 단회에서는 단법(단규)에 대한 교육(강습)과 단원일기(이후 상시일기로 변천)의 점검, 의견제출 및 심의, 양 연합단 사업(인재양성소창립연합단, 농업부창립연합단)의 취지설명 및 단금수합 등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어느 때는 오전 오후로 단회를 진행하였으며, 단법에 대한 음강, 단활동 등에 대한 강연도 진행되었다. 불법연구회의 모든 회원은 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단원과 단장으로서 역할에도 충실하였다. 이는 단원회-단장회-정수위단회로 연계되었으며, 모든 회원들이 단원이 되고, 나아가 단장이 되도록 하였다.

정기훈련은 원기10년 이후 동하로 선원에 입선하여 진행된 것이라면, 상시훈련은 매달 단회를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예회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양면성을 아우르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현재 상시훈련법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6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교무부(중앙)와 지부(지방)에 교화와 훈련을 진행했던 '교무'가 임명되었으며, 각 지역에 예회를 주관하고 그 연장선에서 단회를 진행하였으며, 상시훈련의 결과를 상시일기(당시 단원일기)를 통해 점검하였다. 이처럼 교당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매개하

는 곳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지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교당이 곧 훈련의 도량이며, 세부적으로 실제 훈련(특히 상시훈련)은 교화단을 통해 점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단독이든 연합이든) 교화단 법회를 통해 교당의 훈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교화단의 역할과 함께 구체적으로 교화단 법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훈련 모델의 목록과 훈련방안을 샘플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초기교단의 훈련법과 교당, 교화단의 역할

1) 훈련법과 교당(교무부)

원불교 교화의 핵심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이다. 원불교의 훈련법은 1925년(원기10)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정 당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큰 틀에서 제시되고 있다. 정기훈련은 ‘서로서로 훈련’으로서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간[定期]에서 정해진 교법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상시훈련은 ‘스스로 훈련’으로서 일상의 장소, 일상의 시간[常時]에서 그 상황에 맞는 수행을 훈련하도록 하였다. 한 마디로 정기훈련법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¹⁾, 상시훈련법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²⁾ 제정된 법이다.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靜時]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動時] 공부로서 작업취사를 주체 삼아 정기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³⁾

그러므로 원불교 훈련의 활성화는 정기와 상시의 두 방향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두 방향을 조화시키고 병진하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시훈련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기와 상시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였던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 2, 3조로서 이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처럼 일상생활에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던 공부인이 ‘지도인’이 있는 곳을 찾아 ‘지난 일을 일일이 문답’하고,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와,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

1)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 『원불교전서』, 55쪽.

2)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2절 상시훈련법, 『원불교전서』, 57쪽.

3)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원불교전서』, 59쪽.

도인에게 해오(解悟) 얻기'를 주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상시훈련법으로 공부하던 공부인이 수시로 자신의 공부 정도를 지도인을 통해 점검받도록 하였다.

두 번째 부분 중 4, 5조를 통해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하도록 함으로써 상시에서 부족한 공부가 정기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6조를 통해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返照)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하도록 함으로써 교당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시 상시훈련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즉 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상시 각각의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과 정 두 사이에서 '재세·출세의 공부인이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제대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처음 훈련법 제정 당시(원기 10년)에는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⁴⁾이었다. 그 내용 중 1, 2, 3조를 먼저 살펴보면, 재가공부인⁵⁾이 '재가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을 지내나서 하시든지 교무부에 오고 보면 그 사항에 경과한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부에 허가 얻기',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의심나난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부의 양해 얻기'를 주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교무부'는 불법연구회 창립 당시(원기 9년) 7부 중 하나로서 회원들의 훈련 및 단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로서 그 역할은 해방이후까지 불법연구회의 전 기간 동안 크게 변동이 없다.⁶⁾

실제 교무부의 역할을 각 지부(예를 들어 경성지부)에서 그대로 실현했던 이들이 '교무'(당시 2년 임기로 발령함)였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교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지부'는 각 지역에서 교무부의 역할을 대행하던 곳이기도 하였다. 즉 교무부는 문답과 감정과 해오를 해줄 수 있는 (지도인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⁷⁾ 그러므로 현재의 교당은 이러한 교무부의 역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교무부(혹은 지부나 교당)에서 교무의 역할은 교화단에서 단장이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도인의 역할을 지역(지부) 전체적으로는 교무가 맡고, 각 단에서는 단장이 맡도록

4) 『불법연구회규약』, 1927(원기12), 24쪽.

5) 즉 현재의 표현에 따르면, 상시훈련법으로 공부하던 이들을 말한다. 당시 재가공부, 출가공부는 공부인의 처소에 따른 개념(즉 입선하면 출가공부인, 일상으로 돌아가면 재가공부인이 되는 것)이며, 정식 출가(원불교에서는 전무출신) 서원과 교육 과정을 통해 획득된 자격이나 신분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즉 출가자(전무출신)이라도 정기공부와 함께 상시공부(재가공부)를 다 해야 하는 것이며, 재가자라 할지라도 동등하게 두 가지 공부를 병행하도록 했다.

6) “教務部의 職務: 本會의 趣旨, 規約, 經傳을 가라쳐 練習식히며 冬夏六個月에 工夫人の 日記를 勘定하며 演說과 算術를 가라치며 必要한 歷史를 講習하기로 함” 『불법연구회규약』, 1927(원기12), 7쪽.

7)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의 「일기조사기재법」을 보면,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6조 내 1조, 3조, 6조는 세계를 교무부로 하야 비록 본회 교무부에는 오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조건의 해석대로 이행한 시는 실행한 번수로써 기재함. 2조, 4조, 5조는 본회 교무부의 감정을 맛난 것이니 직접 와서 이행한 조를 기재함.”이라 하고 있어서 교당(교무부)에 와야만 하는 조항과 그렇지 않는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무부의 폭이 세계 전체로 확대된 넓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1931(원기16), 25쪽.

되어 있는 것이다.

2) 교화단법과 훈련법

교화단의 역할, 즉 정기공부를 상시(일상생활)로 매개하는 역할, 지도인의 지도(문답, 감정, 해오 등)를 통해 상시 공부를 점검하는 역할은 이미 소태산 대종사께서 십인일단(十人一團)의 제도를 구상했던 당시부터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 조직이 이루어지고(원기 2년), 9인 단원과의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던 당시 ‘삼순일(三旬日) 예회’를 볼 때, “誠誠名時讀이라는 책(冊)을 두시사 十日동안 지낸 바 마음을 調査하야 그 信誠進退와 行實善否를 對照”⁸⁾하도록 했다는 구절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예회는 곧 8~9인의 단원이 중심이 되었던 단회였으며, 이 단회를 통해 단장이었던 소태산의 지도 아래 상시공부를 지도받았던 것이다.

십인일단의 교화단법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모두 교화하고 훈련할 방식으로써 일찍이 강구되었던 방법으로서 이 단을 통해 첫째, 훈련(특히 정기공부)의 결과가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둘째, 상시 공부를 여러 가지 조사법(성계명시독, 단원일기성적조사법, 유념무념대조법, 태조사법 등)을 통해 점검하도록 했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기와 상시의 각 공부를 매개하여 두 공부가 서로 상의상자가 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화단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시대에 맞게 내놓으신 자비방편으로서 일상의 모든 이[재가공부인]들이 이 공부법을 통해 불문에 귀의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 교법이 일상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주신 대법(大法)이라 할 수 있다. 즉 “將次 十方世界 몯은 사람의 統治敎化의 法을 制定하섯으니 그 要旨는 오직 한 先生의 가르침으로써 遠近各處에 散住하는 千萬사람을 고로 訓練하는 빠른 方法”⁹⁾이다. 이후 초기교단의 기초를 닦았던 방언공사, 범인성사 등도 모두 단원들의 일심합력을 통해 성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교단의 교화과정에 나타난 교화단의 역할을 통해 이후 원불교 교화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공부법과 조직법은 어떤 것인지가 보다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 공부법은 다름 아닌 훈련법이요, 조직법은 교화단법이다. 이는 변산 시대(원기 4년에서 원기 8년 경)의 예비훈련과 예비단법의 시험을 거쳐서 익산 시대, 즉 불법연구회의 창립(원기 9년)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3) 교당의 역할: 예회(정기훈련)와 단회(상시훈련)

8) 『불법연구회창건사』, 『회보』 제41호, 45쪽. *『원불교교사』에는 ‘誠誠明示讀’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불교전서』, 1046쪽.

9) 『불법연구회창건사』, 『회보』 제40호, 47쪽.

불법연구회 시기에는 정기훈련이 동하(冬夏)로 지속됨과 동시에 단 조직이 활성화되어 매달 단회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무부(현재의 교당)가 가지는 정기훈련의 대체 역할이다. 실제 당시 정기훈련을 ‘양도입선의 정기 훈련’과 함께 ‘삼차예회의 정기훈련’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¹⁰⁾ 이를 통해 삼육일 예회(정례모임)가 정기훈련의 역할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경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에서도 「제3장 훈련편」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난 책임 각 조의 해석」을 보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5. 每月三六日에는 아모리 急한 事務가 있다 하야도 이 그 날이 되고 보면 반닷이 그 날은 穩全히 教務部에 와서 工夫에 對한 일만 注意하자는 일은 定期專門工夫를 할 階梯가 되지 못한 會員에게난 每月三六日이라도 誠實히 參例해야 一年內 三六日의 定期訓練을 받게 함이요, 비록 定期訓練을 받은 사람이라도 十日만에 一次式 工夫에 對한 誠意를 嘉勵하며 길을 밝히기 爲하야 人間生活의 모든 事務를 미리 準備할 것은 準備하고 處理할 것은 處理한 後 그 날은 期於히 參例하도록 하게 함이요.”¹¹⁾

이를 통해 실제 예회가 정기훈련의 대안적 역할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정기 훈련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에 하는 공부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기’란 교당의 예회로부터 멀리는 동하의 입선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다양하게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당의 역할 중에는 바로 정기훈련의 역할도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예회의 이러한 역할을 단회가 분담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불법연구회 시기의 단회의 주요 활동을 보면, 실제 단규(團規)에 대한 강습, 단원일기성적조사, 의견제출(및 심의), 양 창립연합단 취지 설명 및 단금수합 등의 크게 네 가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²⁾ 이 가운데, 단원일기조사 등을 보면, 단회는 기본적으로 상시공부를 점검(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단규강습 등을 통해 단 활동과 관련된 학습(예를 들어 단규뿐만 아니라 재가공부인의 고락에 대한 설명, 삼십계문, 솔성요론, 재가공부인 응용주의사학, 재가공부인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등)을 매 단회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예회가 가지는 정기공부의 역할도 일부 겸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³⁾

10) 4. 在家工夫人의게 난 在家應用注意事項 六條로써 在家의 鍛鍊을 밋게 하나 三綱領의 힘을 完全히 得치 못한 者로서는 風塵雨埃의 俗世에 長在하야 獨力으로써 工夫의 前路를 開拓키로 하면 工夫의 方式이 荒廢하기 쉬움으로 在家工夫人이 教務部에 와서 하난 責任 六個條를 制定하야 在家工夫人으로서 教務部에 온 時난 반드시 教務部를 단여간 效力이 있도록 하난니 卽 1條로써는 그 在家鍛鍊을 受할 時 經過狀況을 一一問答케 하고 2條로는 見聞間 그 感覺된 바를 勘定하야 知識을 넓히게 하며, 3條로는 趣旨·規約·經傳과 宗師主의 法說內 그 疑心된 바를 解釋하야 알게 하며, 4條로는 每年 兩度入禪의 定期訓練을 밋게 하고, 5條로는 每月 三次例會의 定期訓練을 밋게 하며, 6條로는 教務部를 단여 갈 때 반드시 教務部를 단여가는 效力有無를 對照케 하난니 此責任事項 六條로써 在家工夫人이 教務部를 단여갈 時면 期於히 履行하도록 訓練하다. 「교무부 제1회 공부인 훈련보고서」 「3. 훈련의 방식」 중, 『시창 13년 사업보고서』, 불법연구회, 1928(시창 13).

11) 『보경육대요령』, 불법연구회, 1932, 68쪽.

12) 장진영, 「불법연구회교화단사」, 『정신개벽』 제17집, 신풍교학회, 2011 참조.

이상에서 교당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교화단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정기공부와 상시공부을 매개하는 역할, 둘째는 지도인의 지도를 통해 상시공부를 점검하는 역할, 셋째는 정기공부를 대체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현재도 교당에는 설교, 기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교화단은 교당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정기공부를 대체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시공부의 점검 역할과 함께 정기공부의 대체 역할을 연계시켜주는 매개 역할 등 원불교 훈련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하에서는 훈련법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교화단 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안해보자 한다.

2. 교화단과 훈련의 중요성

- 교화단 조직과 훈련법으로 교화의 핵심 축을 삼자 -

소태산 대종사는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지상 낙원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신개벽을 통해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에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십인일단의 단 제도를 제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¹⁴⁾”고 하여 십인일단의 단 조직법이 모든 사람을 두루 훈련시킬 수 있는 빠른 방법이요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수 있는 간이한 조직임을 자신 있게 밝혀주었다. 이처럼 개교의 동기와 대종경 서품 6장의 내용만을 가지고도 왜 교화단법과 훈련법이 교화활동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여기서 왜 교화단법과 훈련법이 교화의 두 축이 되어야 하는지를 대종사 이하 역대 스승들의 법문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교화단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① 교화단의 중요성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는 이 십인일단의 단 제도가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고루 교화할 빠른 방법임을 천명하였다. 정산종사도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 하

13) 실제 ‘교화단’이란 명칭이 정착되기 전에는 ‘교육통일기관’이란 용어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으며 (1928년), 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기능을 겸하고 있었다. 이후 단은 『통치조단규약』 (1931년)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이는 소박한 의미에서 지도인의 통일적 지도감독의 의미)의 의미도 포함한 것인데, 1941년(원기26) 경에 와서 ‘의무교화단’이라 하여 ‘교화단’이란 명칭이 등장하게 되면서 교화의 의미가 단의 주된 역할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교헌』 등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화단은 교화와 통치의 양면을 다 아우르는 교단의 근간 조직임에 틀림없다. 다만 여기서는 교화단이 가진 ‘교화’의 의미, 즉 교육과 훈련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14) 「대종경」, 서품 6장.

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¹⁵⁾ 하여 교화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산종사도 대종사께서 일원대도를 천명하시고 교화단으로 전 교도와 전 인류가 서로서로 훈련을 촉진시켜 누구나 활불이 되고 다 같이 불국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물 샐 틈 없는 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¹⁶⁾ 고 하시면서 교화단 훈련으로 세계훈련을 시켜 전 인류의 마음을 개조시켜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을 건설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산종사는 대종사께서 행정은 없앨 수도 있으나 교화단은 없앨 수 없다고 하시며 교화단을 대단히 강조하시었으니 기관이나 교당에서는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활동을 하여야 한다¹⁷⁾ 고 밝힘으로써 교화단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좌산 상사도 교화단은 법신불과 대종사의 자비의 품이요, 만생령 구원의 반야용선이라 전제하면서 교화단은 숙겁다생의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요 삼계무명을 밝히는 혜명의 원천이다. 교리훈련의 현장이요 교법을 구현하는 일원세계 건설의 현장이요 경륜과 포부를 실현하는 현장이요 시방세계 불국세계의 살림현장이다. 자신과 생령을 구제할 반야용선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¹⁸⁾ 고 하여 교화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산 종법사는 교화단은 자신과 교단과 세계를 구원하는 핵심조직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화단 활동을 강화시켜 교단을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이끌고, 교화단 활동을 심화시켜 수행심과 봉공정신을 크게 장양시키며, 교화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화기로운 교단으로 가꾸어 갈 것¹⁹⁾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종사로부터 현 종법사까지 역대 스승들께서 교화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역대 스승들이 교화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원불교 개교이념을 실현하는 하는데 가장 적실한 방법이요 빠른 방법으로서 교화활동의 핵심원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화단이 교화에 있어 핵심적 위치에 있는 이유를 이웃종교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성장을 위해 특별강사의 초빙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동원한 대형부흥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교회성장의 첫째 조건은 구역조직임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구역조직은 모든 소그룹의 기초이며, 교회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하부구조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역조직은 교회를 건실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뿌리이며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교회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⁰⁾

또한 요즘 교회를 보면 예수를 닮아 살려고 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천당에 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15)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0장.

16) 『대산종법사법문집 2』, 제7부, 제20회 교역자훈련 해제법설, 1980, 259 쪽 참조.

17) 『대산종사 법어』 자문판, 제5 회상편 45장.

18) 법무실,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 17쪽.

19) 경산 종법사, 「교화단 운영 방침」, 원기92년 9월 18일 법문.

20) 조용기, 『회망목회 45년』, 209~10쪽. 조용기 목사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의 대부분은 구역조직이 잘 된 교회임을 볼 수 있고, 구역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담임목사가 바뀌어도 교회가 계속 성장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역조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단위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

않다²¹⁾고 한다. 최근 한국교회의 현상을 보면 교회 자체가 대형화됨으로써 수많은 교인에게 예수의 참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런 교회의 병폐를 간파한 옥한흠 목사는 구역예배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끝나는 폐동적인 방식은 단순히 교인을 관리하는 것 밖에 다른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²²⁾. 그러면서 소그룹을 통한 제자훈련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길이며, 예수의 참 제자로서 복음전파의 사역자로서 키우고 활용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훈련법의 중요성

다음은 왜 훈련법이 교화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원불교 교화에서 훈련이 왜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 훈련의 보편적 의미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훈련이 없이는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집단의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는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²³⁾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원불교의 개교이념과 교법의 구조상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없다면 원불교가 추구하는 지상 낙원세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정산종사는 현실의 안목으로 현 사회를 보는 사람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혼란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 국가를 원망하게 되나 진리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연구하여 정신 교육과 도덕의 훈련이 충분히 보급되지 못한 소치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와 불화며 흥망성쇠가 오직 마음의 수련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선을 나는 것은 곧 정신 교육과 도덕의 훈련을 받는 것이니 이 선중에 마음의 수련을 잘 하여 진리의 혜안을 얻어 일반 사회에 나아가 평화 세계 실현의 주인공이 되어 주기 바란다²⁴⁾ 고 하여 사실적 도덕훈련을 하게되면 진리의 안목을 얻게 되어 평화세계 건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훈련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산종사는 ‘인생은 훈련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마음의 혁명이며 도덕부활이다. 대종사님의 훈련법은 전성(前聖)의 미개척지를 개척하신 구세제중의 활법이다. 따라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이대훈련법으로 정신에 자주력을 얻고, 사리에 연구력을 얻고, 작업에 취사력을 얻어서 육신의 기질변화가 되어야 새 천지 새 역사가 시작된다²⁵⁾’고 하여 원불교의 훈련은 마음의 혁명과 도덕부활을 통해서

21)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5, 82~3쪽.

22) 이근미, 위의 책, 88쪽. 병희운영의 내용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23) 「정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24) 『한울안 한이치』, 제4장 사좌좌에서 9.

인생이 거듭나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일체생령을 이롭게 하는 활법으로서 인류의 새 역사를 열어 가는 중요한 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산종사는 기숙사 지도교무에게 2대훈련법인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라 하시면서 훈련이라야 산 종교, 산 교단, 산 도인이 나오고 무루지를 얻게 된다²⁶⁾고 강조하시었다.

이처럼 원불교 훈련법은 대공도야로 큰 공장에서 물건을 계속 만들어 내는 것과 같고, 모계포란으로 어미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를 깨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회상에 들어와서 한눈팔지 아니하고 이 법으로 훈련만 잘 받으면 여래가 되고 활불이 되는 길²⁷⁾이며, 상생과 평등의 낙원사회를 이룩하는 중요한 길이며, 원불교 교화의 본질을 구현하는 핵심적 요체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교화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에 대한 교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훈련에 대한 교역자 의식의 변화와 함께 전 교역자의 훈련 요원화가 시급하며, 전 교당의 훈련 센터화와 정기훈련의 확산²⁸⁾이 절실하다고 본다. 특히 각 교당에서는 단장 중앙에 대한 교육훈련²⁹⁾을 체계화하고 보편화시켜 전교도가 교화단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교화력을 집중해야 해야 할 것이다.

25) 『대산종법사 법문』 제3집, 제4편 훈련 41장.

26) 『대산종법사법문집제3집』, 제4 훈련 5장.

27) 『대산종법사법문집』 제3집, 제4 훈련 1장 참조.

28) 김경일, 「정기훈련의 의의와 그 실천의 반성」, (『정신개벽』 제4집), 37-40쪽 참조. 김경일 교수는 원불교가 근본을 요달하는 정기훈련의 강화 없이 생활화, 대중화, 시대화에 급급한다면 일상적인 도덕규범의 운동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신앙의 역동성과 수행의 깊이도 정기훈련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함을 주장함과 동시에 교단의 교화현장에서 정기훈련의 무력함은 그 자체에 머루르는 것이 아니라 상시훈련의 무력함으로 연결되며, 일상수행의 정체현상은 교단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로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29) 교화단 조직에 있어 리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단장 중앙의 리더쉽 또는 역할 정도에 따라 그 교화단 활동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화단의 리더인 단장 중앙의 역할은 그 교화단의 성격과 활동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오도칠, 「교화단 활동을 통한 교화 발전」, 『원불교 사상』 제19집, 원불교사상연구원, 1995. 467-8쪽 참조). 실제로 교화현장에서 수많은 교화단이 똑 같은 교화단 운영 지침으로 교화단을 이끌어 가지고 그 단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단장 중앙의 마인드와 역할에 따라 활동 내용이 다르게 나타남을 직간접으로 확인하게 된다.

3. 교화단 법회의 훈련 프로그램 제안

태방 6단은 위의 초기교단의 역사에 근거하여 교당 및 교화단이 훈련법과 연계되었을 때, 비로소 원불교의 공부와 교화, 나아가 공부와 일, 공부와 생활이 둘이 아닌 이사병행, 영육쌍전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음을 단회를 통해 거듭 확인하였다. 이에 교당(교화단) 중심 훈련 프로그램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신앙훈련 2개, 수행훈련 10개, 신분검사 등을 포함하여 총 13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1년 12개월 중 매월 교화단 법회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목록과 개요는 첨부자료로 소개하겠다.

이 가운데 “불공하는 법”은 완성된 교안과 그 교안을 바탕으로 직접 시연한 동영상 촬영(45분 분량)자료를 제공하였다. 이후 목록에 제시된 훈련목록은 각각 교안과 영상자료로 제작하여 실제 교화단 법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교화단 법회에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여기서는 교화단 법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교안과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현장에서는 제시된 주제를 먼저 단장들이 훈련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교당 및 교화단의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화단 법회를 통한 훈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교당이 곧 훈련도량이 되도록 하고, 교무가 단장 훈련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교당교무가 먼저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훈련과 교화단이 교당 교화의 내용과 형식으로써 내외가 겸전된 교화 모델이 제시될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 첨부 1. [교화단 범회 프로그램 개요]

순	프로그램명	개발자
1	염불 실습	이연길
2	좌선 실습	박인전
3	경전 공부	안세명
4	강연 실습	이정일
5	회화 실습	임진은
6	정기일기 실습	이정일
7	상시일기 실습	박인전
8	조행 실습	박인전
9	조석 심고	안세명
10	불공하는 법	조명규
11	상시응용주의사항	이대진
12	일상수행의 요법	이대진
13	신분검사	전상현

[염불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실내외/달빛 별빛 아래)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선이나 염불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 염불의 공덕을 알아차릴수 있다.					
준비물	원불교전서(각자준비), 죽비, 목탁, 매직, 포스트 일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 어봉독(대종경 수행품9장) – 성가(64장, 달보다 두렷하고_정신수양가)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2부 : 교화단 훈련						
■ 주제 설교 : “念佛염불”						
1. 마음열기 – 원리 & 동기부여						
우리는 삼대력을 얻기 위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공부를 한다. 그 중에 정신수양 공부로 염불과 좌선을 꾸준히 하여 정신의 자주력을 쌓는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과 목으로 11과목을 말씀해주신바 있다. 그 가운데 염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念佛염불이란 말은 그대로 ‘부처를 생각한다’는 말씀이다. 천지만엽으로 흘어진 정신을 주문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정진』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제1절 정기훈련법) 즉, 부처를 이루기 위해 천만가지로 흘어지는 생각을 오직 아미타불에 집주하여 부르게 함으로써 일심을 모아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다. 「영주」, 「청정주」 등과 같은 주송은 간단한 기원문 형식의 글귀를 계속하여 부르게 함으로써 잡념을 제거하고 정기를 함양하는 수양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음나누기-방법&공덕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신적인 가름을 해갈할 그 해소책을 말씀해주시기를 “정신의 가름이 들면 불안과 초조, 공포와 망상으로 머리에 불이 붙나니 이 불을 끄려면 염불, 좌선, 심고, 기도, 주문 등을 기본으로 공부하되 육신노동도 적당히 하여 정신을 함축해야 할 것이요” 하셨다. <「대산법어」 제4적공편 13장> 서울교당에서 대종사께서 수양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공주 여쭙기를 “노인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어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겠나이까.” 하니 “그러면 글귀는 외우겠는가.” 하시며 염불 대신 외울 글귀하나 지어주시기를 즉석에서 “去來覺道無窮花步步一切大聖經”이라 하시고 뒤이어 “永天永地永保長生 萬歲滅度常獨露” 말씀 하셨다. <「선외록」 22.최종선외장 2절>

염불방에서 대종사께서는 “알뜰한 염불 한 마디에 영단이 좁쌀 하나만큼씩은 뭉쳐질 것이다” “초학자는 좌선보다는 염불을 많이 하라”라고 하셨다. 또한 염불의 방법에서 밝혀주신바 있듯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이나 행주좌와간에 잡념이 일어날 때마다 염불을 하는 것이다. <「선외록」 8.일심직공장5절>

일하면서 염불을 하면 오히려 두 마음이 될 때에는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므로 중지하는 것이 좋다. 보통 우리가 일을 해보면 대개는 그 일에 능숙해질 경우 그 일을 수족으로 하면서도 이 생각 정 생각의 잡념이 나올 때가 없지 않을 것이니 그때 천만가지 생각을 통일 하는 방법으로 염불을 하자는 것이다. (『교전공부』 각산 신도형 著)

계속해서 염불로써 훈련을 하면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치연히 작용하는 번뇌 망상을 잠재우고 심신간에 안정을 얻기 때문에 자연 그 행동에 순서를 얻게 되고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 지며 기억력이 좋아지고 인내력이 생겨나며 착심이 없어지고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며 극락을 수용하여 결국 생사에 자유를 얻게 된다.

3. 마음의 다짐-핵심반복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공부인이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써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그 다음에 좌선으로써 진경에 들게 하면 정신수양공부에 효과를 얻을 것이며 자주의 힘이 쌓일 것이다.

■ 교화단 훈련

1. 상호인사

2. 훈련안내

3. 1분 명상

4. 교전 함께 봉독(3분) – 염불의 요지 (정전 수행편 염불법)

5. 봉독 후 30초 명상과 법문 되새겨보기(5분)

– 30초명상 후 단장or중앙은 다음 간략문을 읽어 주어 염불의 정의와 목적(필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교전봉독을 했기 때문에 Point만 짚어준다.)

1) 염불의 정의

- ① 천만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
- ② 순영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

2) 염불의 목적

- ① 自心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
- ②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위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

6. 염불의 방법(5분)

(**공통 문답감정 해오가 살아날 수 있도록)

1) 자세, 음성은 기운에 적당히, 정신은 일념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

2) 염불로써 안정시킬 때의 몇 가지 예 -각자의 심성원래를 반조하여

- ① 분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
- ② 탐심이 일어나 마음이 흔들릴 때
- ③ 순·역경에 끌려 마음이 흔들릴 때
- ④ 무슨 일을 할 때이나 기타 행주좌와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할 때

3) 주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이 되지 못할 때는 중지

4) 일념의 대중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으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효과가 있다.

7. 염불하기(15분)

– 단장의 목탁소리에 맞추어 ‘나무아미타불’한다

- 1) 등을 맞대고 a.둥글게 앉거나 b.나란히 앉거나
- 2) 마주보고 a.둥글게 앉거나 b.나란히 앉거나

8. 입정하기(5분)

- 마칠 때 목탁신호

9. 감상나누기(15분)

- 1) 염불 후 느낀 소득을 포스트 일에 한 가지씩 적어 벽에 붙인다.
- 2) 벽에 붙인 포스트 일을 보며 1분씩 표현 또는 회화한다.
(**문답감정해오가 살아날 수 있도록)



(1인이 여러장 사용가능)

10. 다짐과 유무념(5분)

- 염불의 공덕을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1) 한 가지 수양과목으로 염불과 좌선이 있고
 - 2) 염불로써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선으로써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공덕

11.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스승님의 법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매일 매일 경전공부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2.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천념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 수 있다.2.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3.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수양력을 얻을 것이다.
	<p>** 염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친구들과 함께,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응용할 수도 있다.</p>

[좌선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상시옹용주의사항 5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좌선법을 익힌다. 2. 좌선 실행을 위해 몸 고르기, 호흡 고르기, 마음 고르기의 표준을 잡고 익힌다.		
준비물	전서, 선복, 방석, 좌종, 명상 음악, 죽비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 봉독(정전 제3수행편 좌선법) - 성가(188장 예쁘고 밉고(입정의 노래)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30분)

2부 : 교화단 훈련 (60분)

■ 주제 설교 : '좌선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자' (15분)

※ 주제법문 : 정전 제3수행편 > 정기훈련법 中 좌선/ > 상시훈련법 > 상시옹용주의사항 >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 좌선법

1. 100세 시대를 가치 있게

100세 시대입니다. '생명 연장의 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생명 연장의 꿈'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인류도 겪지 못한 길고 긴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100세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교당에 나오셔서 법회를 보시고, 훈련을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냥 긴긴 삶을 살아가는 것, 연명하는 것,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생애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화단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불보살로 진급하는 삶, 불퇴전의 법위에 도달하는 삶이 되시어 100세 시대를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염원합니다.

2. 좌선과 나의 삶

오늘 교화단 훈련의 주제는 좌선입니다. 좌선이 어떻게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까요? 대종사께서는 사람이 평생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벌어 놓아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니 이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겠느냐며, 영원한 나의 소유에 대해서 ①남을 위한 노력과 무상의 보시, ②정법에 대한 서원, ③서원을 향해 수행한 마음의 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좌선을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원의 진리, 그 언어도단의 자리를 직접 깨치기 위한 공부길입니다. (서품 19장 -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함이요,) 그리고 이 공부를 정기훈련 과목으로도 지정하시고, 상시훈련 상시응용주의사항에도 넣어주셨습니다.

3. 좌선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좌선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정전 좌선법에도 자상히 밝혀져 있고, 훈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통해 정기 훈련과 상시 훈련에 모두 좌선 공부를 넣어 주신 본의를 생각해 보면, 좌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호흡하는 것 밥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실습해서, '내가 좌선 공부 시작해야겠다'하는 발심이 나고, 그 발심을 바른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4. 좌선의 공덕

마지막으로 정전 좌선법에 있는 좌선의 공덕을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정전 좌선의 공덕 합독)

좌선을 통하여 가치있는 100세 삶은 물론, 생사를 초월한 자리에서 극락을 수용하시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화단 훈련 : 좌선 실습

1. 상호 인사

교화단별로 장소를 정리하고,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2. 훈련 안내

훈련 주제를 안내하고,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좌석과 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요가와 선에 적당한 간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좌선의 방법 봉독합니다. (5분)

3. 몸 풀기 요가 (10분)

- 1) 원체조 (발목-무릎-허리-어깨-목-등배-상체 돌리기)
- 2) 발목 풀기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한쪽 발목을 다른 쪽 무릎에 올려 놓고 손으로 발목 돌리기, 용천혈 두드리기, 다리 경락 마사지 등)
- 3) 골반 풀기 (나비 자세-두 발을 앞으로 모으고 무릎은 바닥에 닫도록 내린 후 아랫배, 가슴, 이마 순으로 상체를 숙였다가 이마, 가슴, 아랫배 순으로 세우기/ 두 발을 몸 앞으로 모으고 무릎을 바닥으로 툭툭 치듯 흔들기)
- 4) 허리 퍼기 (반좌 상태에서 손 앞으로 뻗고 상체를 고정하여 바로 세우기)
- 5) 가슴 퍼기의 요가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위로 들어 올리기)
- 6) 좌선을 위한 자리잡기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는 동작으로 꼬리뼈 세우기/ 어깨에 힘을 빼 팔굼치까지 그대로 툭 떨어뜨리고, 손은 무릎에 얹거나 모으기/ 턱을 약간 당기고 눈은 떠서 시선 고정하기)

4. 입정 (30분)

- 1) 입정을 알리는 좌종 1타

(입정을 시작할 때는 명상 음악과 함께 좌선의 방법을 읽으며 멘트에 따라 하나씩 쟁겨나가도록 합니다. 멘트가 끝나면 명상 음악의 볼륨을 점차 줄이고 고요히 합니다.)

- 2) 출정을 알리는 좌종 1타

5. 몸 풀기 요가 (5분)

- 1) 발목풀기

(다리를 앞으로 뻗어 무릎 문지르기, 뻗은 상태에서 발끝 돌려 발목 풀기, 발 끝 부딪히기 50회)

2) 골반 풀기

(두 발을 몸 앞으로 바짝 당겨서 모았다가 한쪽 다리를 엉덩이쪽으로 돌리고 돌린 다리쪽 골반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움직이기 (좌우 양 방향으로 한 번씩)/ 히어로 자세-한쪽 다리를 접고, 그 위에 다른 쪽 다리를 포개어 접은 뒤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꾹 누르듯 발을 잡은 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다리를 지그시 누르기(좌우 양 방향으로 한 번씩) 숙였다 상체를 세우고 처음 접은 다리의 반대쪽으로 허리 돌리기(좌우 양 방향으로 한 번씩)

6. 생활 속에서의 좌선 안내(10분)

- 상시훈련으로서 일상 속에서 좌선을 실행하도록 권장
- 단별 좌선 시간을 정하고 매일 카톡으로 출석 체크하는 방법 안내
- 단 공동 유무념으로 정해서 기재하는 방법 권장

7.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좌선 공부를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하고, 좌선 공부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불보살로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8.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좌선을 하겠다는 다짐이 생겼을 때, 좌선의 방법을 알아 바른 방법으로 실행한다. 2. 좌선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말로 전할 수 없는 이치를 깨닫도록 공부한다.
------	---

[경전공부]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 행 자	교무, 단장(중앙)
				<p>1. 경전은 정기훈련 11과목 중 하나이며, 사리연구 훈련과목입니다.</p> <p>2. 경전은 우리의 지정 교서와 참고 경전 등을 이름하며,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p> <p>3.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법어, 대산종사법어, 기타 법문을 통해 본인의 마음공부를 스스로 대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기릅니다.</p> <p>4. 곧 나의 일상생활과 경계와의 대화에서 법문을 표준함으로써 교법에 바탕한 연구력과 취사력을 기르게 합니다.</p> <p>5. 교리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생활 속 대조공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됨을 체험케 합니다. 곧 '산경전'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p> <p>※ 이 프로그램은 소태산마음학교 '감사스토리텔링'을 교당 교화단 훈련에 맞게 각색하였음을 사전에 공지합니다.</p>
준비물	A4 용지, 개인 바인더,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장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봉독 (대종경 수행품 23장) - 성가(85장 스승님 가르치심, 경강의두가) - 설교 - 공지 사항 - 폐식
2부 : 교화단 훈련
■ 주제 설교 : 그대여! 산 경전을 읽어라!
※ 주제법문 : 대종경 수행품 23장(20분)
<p>1. 경전은 우리의 지정교서와 참고 경전을 이름하며,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하는 방향로를 알게 하기 위한 훈련과목입니다. <정전 수행편 정기훈련 법></p> <p>2. 대종사님께서는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산경전'을 발견하라 말씀하셨습니다.</p>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님
이 없나니, 눈을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요,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
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동하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
디서나 조금도 끊임 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대종경 수행품 23장>

3. 경전은 세상 전체의 시비이해의 일과 대소유무의 이치,
이 두 가지를 밝혀 놓은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23
장>

4. 대종사님의 교법은 정법시대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지 훈련하는 구전심수의 정법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22>

5. 또한 경전에는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
여 주는 공부의 방향로가 담겨있습니다. <대종경 인과품 16장>

6. 세가지 경전이 있다 하셨으니, 산 경전은 자성에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으로써 현실의 시비이해의 일과 대소유무의 이치를 발견하는 공부
가 바로 경전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근기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시었나니,

- 1) 첫째는 지목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 2) 둘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요,
- 3) 세째는 우리 자성에 본래 구족한 무형의 경전이라, <정산종사법어 무본
편 52장>

7. 정전과 대종경에 대한 이해

1)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元)"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
법을 두루 통달케 하여주신 "통(通)"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本經)이니라. 예전은 경(敬), 성가(聖歌)는 화(和), 세전(世典)은
정(正)이 각각 그 주자가 되나니라.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장>, <대산
종사법어 교리편 8장>

8. 결론 - 법위등급에서의 경전공부

※ 자신의 법위와 경전공부의 해석 경지가 부합되는지 냉철히 성찰함.

- 1) 특신급 :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 경지
- 2) 법마상전급 : 법과 마를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해석에 과히 착와가 없
는 경지
- 3) 법강항마위 :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실행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
는 경지

4) 출가위 :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한 경지

■ 교화단 훈련 : 경전 스토리텔링(50분)

1. 상호 인사

2. 훈련 안내

3. 1분 기도 명상

4. 체험활동(40분)

1) 법문 함께 봉독하기

- ① 단장은 사전에 준비한 법문을 소개합니다.
(예 : 대종경 인도품 16장 - 좋은 인연이 오래가는 길)
- ② 단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법문을 합독합니다.
- ③ 단원들은 법문을 한 줄씩 읽습니다. 단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법문을 음미합니다.
- ④ 해당 법문을 3번 정도 합독합니다.

2) 느낌 공유하기

- ① 법문 봉독을 마친 후 각자 포스트잇에 자신의 마음에 가장 와 닿는 법문 내용
(단어나 숙어)을 적습니다.
- ② 돌아가면서 그 대목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경청합니다.

3) 법문 합독

이번에 전체 단원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해당 법문을 봉독합니다.

4) 다짐과 유무념 공부

- ① 단원들은 법문을 받들고 난 후 각자의 다짐을 다시 적어봅니다.
- ②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된 이유를 발표합니다.
- ③ 단장은 이러한 다짐을 각자의 유무념 조향으로 선정하게 하고 공동유무념으로도 정하여 한달간 실천토록 합니다.

5.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스승님의 법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으고,
매일 매일 경전공부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6.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함께하는 경전공부로 도반들과 폭넓은 지혜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깊이 있는 회화를 통해 단원들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생활 속 산경전을 발견함으로써 사실적 유무념 공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함으로 공부

함으로 공부^{할 줄} 마는 사람은
정히 이때가 공부^{할 때}가
돌아^왔다고 생각하여
정^제에 흐^흐 쓸^려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정^제를 능^히
쓸^려 쓰는 것이다.

대종경서^서로 일심^심 공부^할 8절 서이노

[강연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p>1. 공부인에게 정기(定期)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 훈련 과목으로 염불(念佛)·좌선(坐禪)·경전(經典)·강연(講演)·회화(會話)·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 일기(定期日記)·상시 일기(常時日記)·주의(注意)·조행(操行) 등의 과목을 정하였나니, 염불·좌선은 정신 수양 훈련 과목이요, 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정기 일기는 사리 연구 훈련 과목이요, 상시 일기·주의·조행은 작업 취사 훈련 과목이니라.</p> <p>2.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키는 공부입니다.</p> <p>3.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格)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혜두(慧頭)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p> <p>4. 회화는 편안하게 임하지만, 강연에 대해서는 두려움부터 갖고 있습니다. 훈련 과목의 하나임을 인지하고 연습을 통해 극복하도록 합니다.</p> <p>5. 경전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 이후에 강연과 회화를 할 수 있음을 챙깁니다.</p> <p>6. 3분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원고 작성, 말하는 연습, 대중 앞에 서는 방법을 제시 합니다.</p>						
준비물	개인 바인더,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p>■ 교화단훈련법회 식순</p> <p>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봉독(대종경 교의품 20장) - 성가(85장 스승님 가르치심, 경강의두가)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p> <p>2부 : 교화단 훈련</p>								

■ 주제 설교 : 혜두단련 공부, 강연!

1. 경전연습과 강연 그리고 회화

강연과 회화는 경전연습과 맞물려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해야 기본을 알게 되고, 그런 연후에야 강연과 회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교법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경전연마 · 강연 · 회화 · 의두 · 성리 · 청법(聽法) · 정기일기 등은 다 혜두를 단련 시켜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반야지가 솟아나게 하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르면 법신불 · 하나님 · 무극(無極) 등의 이치가 하나인 것을 여실히 알게 된다. 그러나 안 뒤에도 다시 매(昧)하지 않도록 늘 연마의 공을 쉬지 아니하여야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정전대의 9. 삼학>

지혜의 가뭄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혜의 가뭄이 들면 사리가 어두워져서 죄불죄(罪不罪) 복불복(福不福)의 이치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명산대천(名山大川) 등에 가서 복만 내려달라고 빌게 된다. 지혜가 어두워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가뭄을 해소하려면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감각감상 등의 사리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혜가 거울같이 밝게 열리어 사리에 어둠이 없다.

<대산3집 제3편 수행 36. 3대 가뭄과 그 해소책>

2. 강연 경험의 중요성

“강연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格)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혜두(慧頭)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요”

정전에서 밝혀 주신대로 강연은 일과 이치 간에 정해진 문제의 의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방법 또한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서 내가 알고 있는 바, 법문에 밝혀 주신 바 등을 전달하며, 소통을 통해 지혜를 단련하는 법이지요.

강연도 회화도 해보지 않으면 계속 멈칫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상에 서려면 두려움이 앞서고, 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 훈련과목으로 강연을 내어 주셨으니, 강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신감, 전달력, 영향력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3. 강연의 격(格)

1) 시각과 청각이 주는 영향력

메르비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의 전달력에 어떤 감각이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① 청각 - 목소리, 음성, 음색 38%

② 시각 - 표정 - 35%

태도 -20%

③ 말씨 - 내용 - 7%

퍼센트 결과에 대해 의문이 걸리지 않나요? 내용은 불과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교나 강연, 면접을 통해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는 자리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대상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표정, 목소리, 태도를 보고 흡인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전달하는 말의 내용이 50~6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메르비안 법칙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격을 갖춘다”는, 내용에도 격이 있어야 하지만 외적인 격도 굉장히 중요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표정, 태도를 좋게 하는 테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단상에 서서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전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밝은 표정, 경망스럽거나 침울하지 않은 태도, 어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몸짓 등은 무대에 많이 서봄으로 인해 조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말의 표현

① 회화는 귀납적으로, 강연은 연역적으로 해야 합니다. 강연을 할 때에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중심문장을 먼저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② 말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수치화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단순히 ‘좋다!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례를 들며 근거를 대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략해서 말하거나, 주어가 명확하지 않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유념해야겠습니다.

4. 미리 연마

강연은 미리 미리, 그리고 생활 속에서 연마해야 합니다. 원고를 구성할 때에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 뼈대를 잡고, 제목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화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연마하며 교법에 맥을 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의 소리만큼 설득력 있는 예화는 없으니까요. 미리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강연의 예화를 찾아야, 강연할 때 대중에게 제대로 힘 있게 전달이 되고 은혜가 생깁니다.

5. 공부삼아 강연하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단상에 서서 강연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선진님들 예화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옷고름만 붙잡고 얼굴만 붉히다가 내려가신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고 싶지 않더라도 공부삼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공부의 기회가 왔을 때 피해 다니지만 말고 대종사님 교법으로 거듭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습하다보면, 어느 순간 대 반야지가 샘솟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더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돌리고 챙기어 공부삼아, 격을 갖춘 강연자로 바로 섰을 때 좋은 법문 전달해주는 복전에 섰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교화단 훈련 : 3분 스피치(50분)

1. 상호 인사

2. 훈련 안내

3. 1분 禪

4. 체험활동

- 1) 오늘은 강연에 대해 함께 활동해보겠습니다.
- 2) 강연에 대한 설교를 통해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소통하는 훈련임을 아셨으니 먼저 주제를 정해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주제를 정해 서 원고를 작성해봅니다.
- 3) 주제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무엇이든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가다 글의 마지막에 생각이 정리되고 주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편안하게 임해봅니다.
- 4) 주제가 정해졌다면 이번에는 글의 제목을 정하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집중해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 5)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추고
- 6) 적절한 예화도 생각해내어 설득할 구조를 갖춥니다.
- 7) 이제 어느 정도 원고가 작성이 되면 원고를 소리 내어 읽으며 연습합니다.
- 8) 단상에 서서 격을 갖추어 자신 있게 자신의 주제에 대해 발표합니다. 단 정해진 3분 안에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유의합니다. 시간이 되면 단장님은 목탁으로 신호합니다.
- 9) 단원 모두가 발표를 마친 후 강연을 한 소감을 나눕니다.

5. 관련법문 봉독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래 사원에서는 염불종(念佛宗)은 언제나 염불만 하고, 교종(敎宗)은 언제나 간경(看經)만 하며, 선종(禪宗)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律宗)은 언제나 계(戒)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 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정·혜 삼학의 한 과목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일기·염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이 여러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재래의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대종경 교의품 20장>

대종사 예회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法師)나 강사(講師)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범연히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종경 수행품 2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人道上要法)을 주체삼아 과거에 편벽된 법을 원만하게 하며 어려운 법을 쉽게 하여 누구나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법이어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며, 혹은 특별한 신통(神通)을 얻어서 이 산 도수(移山渡水)와 호풍 환우(呼風喚雨)를 마음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며, 혹은 경전·강연·회화는 쓸 데 없고 염불·좌선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가르침을 바로 행하지 않는 수가 간혹 있나니, 실로 통탄할 일이니라. 지금 각도 사찰 선방이나 심산 궁곡에는 평생 아무 직업 없이 영통이나 도통을 바라고 방황하는 사람이 그 수가 적지 아니하나, 만일 세상을 떠나서 법을 구하며 인도를 여의고 신통만 바란다면 이는 곧 사도(邪道)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먼저 나의 가르치는 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따라 세간 가운데서 공부를 잘 하여 나아가라. 그러한다면, 마침내 복혜 양족(福慧兩足)을 얻는 동시에 신통과 정력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순서 있는 공부요 근원 있는 대도니라.] <대종경 수행품 41장>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회상에 입문하여 정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것은 마음이 묵었다는 증거라,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처음 교단에 들어와 공부할 때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염불·좌선·강연·회화·일기를 했는데 꾸준히 한 사람은 모두 큰 인격을 이루었고 자기 재주만 믿고 꾸준히 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인격을 이루지 못했나니, 특별한 계획을 세우려 하지 말고 정기 훈련 11과목을 중심으로 반복 훈련을 실시해야 지혜의 문이 열릴 것이다.」 <대산법어 제3훈련편 36장>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계는 오랜 가뭄을 해갈할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정신적인 가뭄을 해갈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나니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세 가지 가뭄과 그 해소책에 대해 말해 주리라. 첫째는 정신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불안과 초조, 공포와 망상으로 머리에 불이 붙나니 이 불을 끄려면 염불·좌선·심고·기도·주문 등을 기본으로 공부하되 육신 노동도 적당히 하여 정신을 함축해야 할 것이요, 둘째는 지혜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사리에 어두워져 죄 받고 복 받는 이치를 모르고 하늘에 복만 내려달라고 빌게 되나니 이를 해소하려면 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정기 일기 등으로 지혜가 거울같이 밝게 열리도록 계발해야 할 것이요, 셋째는 실천의 가뭄이라, 이 가뭄이 들면 세상에 거짓이 가득 차 서로 속이려고만 하므로 삿된 길로 가거나 죄의 구렁에 빠져서 금수 같은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나니 이를 해소하려면 상시 일기·주의·조행 등으로 정의는 죽기로써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버리는 실행의 힘을 길러야 하느니라.」 <대산법어 제4 적공편 13장>

* 사리연구

연도치지(研道致知) = 혜(慧) = 일과 이치를 늘 궁구해서 대연구력을 얻는다.

동(動)= 밖으로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히는 공부 (외학지식-外學知識)

정(靜)= 안으로 의두와 성리를

연마하여 바른 지각을 얻는 공부 (내연진리-內研眞理)

경전연마 . 강연 . 회화 . 의두 . 성리 . 청법(聽法) . 정기일기 등은 다 혜두를 단련시켜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반야지가 솟아나게 하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르면 법신불 . 하나님 . 무극(無極) 등의 이치가 하나인 것을 여실히 알게 된다. 그러나 안 뒤에도 다시 매(昧)하지 않도록 늘 연마의 공을 쉬지 아니하여야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대산1집 정전대의, 삼학 중 사리연구>

6. 다짐

- 1) 평소 경전을 봉독하고, 생활을 할 때에 강연과 연계하여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빨2) 평상시 법문을 소리 내어 크게 봉독하고, 원고의 강령을 잡는 연습, 대중 앞에서 격을 갖추어 지견을 교환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7.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강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전공부와 회화 강연은 하나로 연결 되어 있음을 알아 더욱 더 교법 공부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8.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강연 연마를 통해 혜두를 단련시키고 지혜를 얻어갑니다.2. 경전, 회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 미리 연마하고, 실제 행으로 옮기며 자신감, 전달력,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회화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교화단 법회에서 회화가 유용한 공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적절한 회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회화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돋는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경전이나 법설 내에서 느낀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심신작용 처리법과 감각감상이 모두 회화의 주제임을 알게 한다. 3. 단원들 간 활발한 회화를 통해 서로 간에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고 함께 공부해 가는 재미를 느끼게 한다.					
준비물	교전, A4 용지,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 훈련 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봉독 (대중경 교의품 20장) - 성가(113장 영성의 노래)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2부 : 교화단 훈련						
■ 주제 설교 : 회화를 통해 지혜를 단련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화는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단련하는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훈련 11과목 중 사리연구 훈련 과목인 회화는 단원들 간에 각자의 보고 들은 가운데 스스로 느낀 바를 자유로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공부인에게 구속 없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혜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혜두란 지혜의 머리, 지혜의 의두(疑頭)라는 뜻이다. 화두, 의두의 경우에서와 같이 두는 끝 또는 실마리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다. 경전 · 강연 · 회화 · 의두 · 성리 · 정기일기 등이 모두 사리연구 훈련과목임을 상기할 때, 혜두의 단련이란 사리연구의 다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3) 회화는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경전 내에서나 법설 내에서나 그 외에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나 스스로 마음속에 감동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연과 회화가 모두 혜두를 단련시킴에 대의가 있으나, 사람의 혜두는 너무 자유를 주어도 거만하고 누그러져서 참다운 밝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너무 구속하여도 놀리고 옹졸하여져서 참다운 밝음을 얻기가 어려우므로, 강연의 일정한 문제로는 그 혜두에 구속을 주어 단련하게 하고 회화로는 그 혜두에 자유를 주어 단련하게 하여 구속과 자유 두 사이에서 과불급 없이 진정한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이다(육대요령).

2. 회화에 대한 이해

1) 회화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공부로서,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는 대표적인 훈련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회화는 경전이나 법설 내에서 느낀 것이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심신작용 처리건이나 감각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는 일상적인 대화와 달리 체험과 감동, 깨달음에 부합되는 실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 회화는 사리 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제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나, '사리간'이라는 제한을 둘으로써 회화가 사리연구의 과목으로서 지혜를 단련하는 내용이 주제가 됨을 분명히 하였다.

3) 회화의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경전을 보고 느낀 점
- ② 법설을 듣고 느낀 점
- ③ 심신작용 처리건
- ④ 사회문제, 자연, 생활 속에서 들어진 생각이나 깨침 등 감각 감상
- ⑤ 훈련이나 수행 중 얻은 체험 및 감각 감상
- ⑥ 공부나 생활 중 의심 건

4) 효율적인 회화를 위해서는 회화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

(* '회화의 방법'을 프린트하여 나눠주고, 보면서 설명한다.)

- ① 사회자(진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회화를 시작할 때는 그날의 회화 주제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회화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안내한다.

- 회화를 독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현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고 독점을 멈추도록 한다.
-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회화의 주제를 벗어날 때는 이를 알려주고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돋는다.
- 혹 어떤 단원의 공격적이거나 비난적인 태도로 인해서 회화 중 갈등이 발생할 때는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요구한다.
- 회화 중에 단원들의 태도 및 전체적인 상황과 분위기를 잘 살펴서 단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회화에 임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순조로운 흐름이 유지되도록 한다.

②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 가능한 봄의 태도를 단정하고 바르게 가짐으로써 성실하고 진솔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명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 어려운 단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알기 쉬운 말로 전달한다.
- 비꼬는 말투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상황, 사건, 경험, 생각,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 혼자서 너무 긴 시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른 사람에게 문답, 감정, 해오를 제공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모두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자신의 말을 한다. 혹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짐작해서 말하지 말고,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사람과 아울러 말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말에 설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박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로 말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한다.

③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 봄의 태도를 단정하게 한다.
-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 앉으며,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듣는다. 혹 곁눈으로 보거나, 땀 짓을 하거나, 옆 사람과 속삭이거나, 귓속말을 하지 않는다.
- 고개 끄덕임이나 “음” “그렇군요” “그래요” 등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과장된 표현이나 반응은 좋지 않다.

- 설사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 경험, 생각, 느낌을 고려하여 공감적인 태도로 듣는다.
- 잘 알아듣지 못한 말이나 이해하지 못한 말은 알아들은 척하지 않는다. 다시 질문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 자신의 호기심으로 인해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혹 이해하지 못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묻는 것이 좋다.

5) 회화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도반들, 즉 단원들에게 자신이 체험하거나 느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신의 취사나 감각 감상에 대한 문답과 감정, 해오를 얻을 수 있다.
- ② 다른 단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지견을 넓힐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에 대한 포용력이 생기며, 문답과 감정, 해오를 해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대중 속에서 검증하고 정리하는 기회가 된다.
- ③ 서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서로가 문답, 감정, 해오를 해줌으로써 단원들 간의 이해가 골라지고, 함께 성장하게 된다.
- ④ 단원들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공부하는 꺼리로 의견을 교환하다보면 상대방의 상황과 특성들을 자연히 알게 되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므로 단원들 상호 간에 친밀감이 향상된다. 이는 단원들 간의 결속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된다.
- ⑤ 단원들이 만났을 때 공부꺼리를 가지고 활발히 의견 교환을 하다보면 자연히 공부심을 촉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 교화단 훈련 : 회화 실습(50분)

1. 상호 인사

2. 훈련 안내

* 설교 때 제시되었던 ‘회화의 방법’을 함께 읽으며 숙지한다.

3. 1분 명상

4. 조 구성하기

- 단장과 중앙을 중심으로 단원들을 1, 2조로 나누어 두 조를 구성한다.
(한 조가 4~5명) * 조원이 더 적어도 가능.

5. 회화할 내용 메모하기(8분)

- 1) 정전의 일상수행의 요법, 계문, 솔성요론 중에서 회화할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 정한다. (예를 들면, 1조는 일상수행의 요법, 2조는 솔성요론)
- 2) 선정한 정전의 내용을 봉독하고, 그 내용 중에서 자신이 최근 마음을 챙겨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실행으로 옮겼거나, 또는 어떤 이유에서든 실행하지 못한 조목에 대해 자신이 공부한 실제적인 내용을 A4 용지에 간략히 메모한다.

6. 회화 실습(32분)

- ① 단장과 중앙의 진행에 따라 회화 실습을 진행한다. 한 사람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나면, 나머지 조원들은 돌아가면서 피드백(들으면서 얻은 감상, 자신의 유사한 경험, 공부 방법에 대한 의견 등) 한다.
- * 조원 네 명을 기준으로 발표는 4분, 피드백은 한 사람당 1분
- ② 이런 방식으로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와 피드백을 한다. ‘회화의 방법’을 반드시 유념하면서 진행한다.
- ③ 돌아가면서 소감(1분)을 나눈다.

7. 묵상심고

묵상심고를 통해 오늘 공부담을 함께 나눈 소중한 도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챙기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며 함께 진급할 것을 다짐한다.

8.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 하나인 회화에 대하여 이해한다.2. 올바른 회화 방법을 익힌다.3. 공부담을 이야기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 회화 실습 경험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기쁨을 느낀다.
------	---

[정기일기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p>1.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지출과 심신 작용의 처리건과 감각·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 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p> <p>2. 정기일기는 정기 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지출과 심신 작용의 처리건과 감각(感覺) 감상(感想)을 기재시킴이요,</p> <p>3. 정기일기는 현실경전에서의 일의 시비이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신작용처리입니다.</p> <p>4. 두루뭉실하게, 대충대충,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은 정확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p> <p>5. 모든 일은 구체화하고 세세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가 주의와 조행이지요. 주의는 안으로 세세하게, 조행은 밖으로 하부로 대하지 않는 것임을 염두에 두며,</p> <p>6. 정기일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실지 점검과 기재를 통한 공부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p>									
준비물	정기일기 워크시트지, 개인 바인더,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p>■ 교화단훈련법회 식순</p> <p>1부 : 개식 - 입장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범어봉독 (정전 제3 수행편, 제1절 정기훈련법) - 성가(86장 임 주신 삼십계문, 조행 일기 가)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p> <p>2부 : 교화단 훈련</p> <p>■ 주제 설교 : 반야지가 솟아나는 공부, 정기일기!</p>											

1. '정기일기란 무엇인가?'

경전연마·강연·회화·의두·성리·청법(聽法). 정기일기 등은 다 혜두를 단
련시켜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반야지가 솟아나게 하는 공부인 바 극치에 이
르면 법신불. 하나님. 무극(無極) 등의 이치가 하나인 것을 여실히 알게 된
다. 그러나 안 뒤에도 다시 매(昧)하지 않도록 늘 연마의 공을 쉬지 아니하여
야 퇴전하지 않을 것이다.

<정전대의 9. 삼학>

지혜의 가뭄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혜의 가뭄이 들면 사리가 어
두워져서 죄불죄(罪不罪) 복불복(福不福)의 이치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명산
대천(名山大川) 등에 가서 복만 내려달라고 빌게 된다. 지혜가 어두워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가뭄을 해소하려면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감각감상 등의 사리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혜가 거울같
이 밝게 열리어 사리에 어둠이 없다.

<대산3집 제3편 수행 36. 3대 가뭄과 그 해소책>

2. 정기일기에 대한 이해

사리연구의 마지막 과목인 정기일기, 정기일기는 주로 네 가지를 기재합니다.
기재하는 것은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장부를 기재하듯이 말이죠. 껌 한 개를
팔았으면 '한 개 팔았음'하고 쓰는 것이 기재이지, 한 개 팔았는데 '기분이 좋
았다' 이것은 기재가 아닙니다. 'Write'가 아닌, 'Record'입니다.

정기일기는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내용이고, 직관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그래서 사리연구 과목입니다. 반면에, 상시일기는 객관적으로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도, 계문 체
크가 다릅니다. 개인의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객관적인 조항으로 제
시하셨기에 약간은 객관성이 담보 됩니다.

1)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그 첫째는 작업시간 수입니다. 작업시간 수란,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움
직이는 모든 것, 심신 동작이 모두 작업입니다. 24시간동안 무엇을 어디에 썼
는가를 모두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아침에는 수양시간을 해라,
낮에는 경전연마, 보은 활동을 해라, 저녁에는 참회 대조를 해라, 수양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 시간을 실속 있게 알뜰하게 잘 썼느냐를 기재합니다.

‘원기 ○○○년 ○월○일 /○요일, 맑음,

의두연마 10분 – 성리풀 1장, 염불 30분, 좌선 60분, 경전 60분, 수면 5시간, 식사 2시간, 휴식 1시간, 논문 4시간, 염불 읊(乙), 학습시간 1시간, 허송시간 1시간‘

이것은 실제 일기를 기재한 내용입니다. 작업시간수를 기재하다보면 허송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2)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둘째로, 수입 지출을 씁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가계부에 기재를 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얼마나 규모 있게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가계부를 쓰다보면 다음에는 협돈을 안 쓰게 되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돈을 덜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부 작성의 장점이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돈만 쓰지만 우리 공부인들은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의 수입 지출을 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도, 좋은 아이디어도, 사고 안 산 것도, 빌려 준 것도 적어야 합니다. 그것이 유념이고, 그래야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살아 있으나 죽은 송장 같다고 했습니다. 신뢰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3) 심신 작용의 처리건과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신 작용 처리건과 감각 감상을입니다. 이 세상은 일과 이치로 되어있습니다. 일은 시비이해, 이치는 대소유무라 합니다. 이치에 대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감각 감상이요, 내 심신작용, 일에 대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 살펴보는 것은 심신작용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생겨나지요. 바로 처리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리하는 것을 기록하다 보면, 내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3. 법문으로 정리하는 정기일기

사리연구(事理研究=眞理의 눈을 뜨는 方法)에 있어서는 경전(經典)·강연(講演)·회화(會話)·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定期日記)·감각감상(感覺感想)·심신작용처리(心身作用處理)·수지대조(收支對照)의 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론(討論)·상담(相談)·독서(讀書) 등을 하자는 것으로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사리(事理)에 어둡고 불통(不通)한 내 마음이 거듭 밝아 명심(明心)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원만보신불(圓滿報身佛)을 회복(回復)하여 사리간(事理間)에 무애통달(無碍通達)하게 될 것이니 이는 무한(無限)한 대 빛전소(大發電所)를 갖게되는 격으로 전 인류의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눈이 뜨여서 밝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산법어 2집 제5부 대각개교절 경축사, 정기 상시훈련으로 삼대력 갖추자>

■ 교화단 훈련 : 정기일기 기재(50분)

1. 상호 인사

2. 훈련 안내

3. 1분 禪

4. 체험활동 <워크시트지 제공>

- 1) 오늘은 정기일기 중 심신작용처리에 대해 함께 활동해보겠습니다.
- 2) 나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해봅니다.
- 3) 현실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상황기재)
- 4) 그 겪었던 일들을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기재합니다.(처리내용 기재)
처리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자성, 목적, 서원, 법문에 반조합니다.
- 5) 그 했던 일을 돌아보면서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분석합니다.
이 분석 과정은 시비 감정을 통한 죄복을 결산하는 과정입니다.
- 6) 잘한 일은 다음에도 잘 하도록 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고쳐 행동하자고 다짐합니다. 시비를 밝히고 다음취사를 다짐하는 과정입니다.

5. 관련법문 봉독

오늘 삼월 이십 육일은 우리 교단의 제 63회 대각개교절로 대종사님의 대각과 더불어 본교 개교의 경절(慶節)이며, 우리들의 거듭난 공동생일 기념일(共同生日記念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단(敎團) 제1대(第一代) 결산총회(決算總會)와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開敎半百年紀念大會), 제2대(第二代) 2회말(二回末) 총회(總會) 등을 가지면서 대종사님께서 세워 주신 제반기초(諸般基礎) 위에 정산 종법사(鼎山宗法師)님의 크신 뜻을 면면(綿綿)히 계승(繼承)하여 교단의 기반(基盤)을 착실히 다지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내적(內的)으로는 대종사님과 정산종법사님께서 염원(念願)하신 천여래(千如來) 만보살(萬菩薩) 배출의 제도상(制度上) 문호를 열어 그 뜻을 크게 받들었으며 외적(外的)으로는 각종 종교회의(各種宗教會議)에 참석하여 대종사님의 교법과 이 회상(會上)을 대도정법(大道正法)으로 널리 드러내고 종교·사상·종족·사업 면에 대동화합(大同和合)의 길을 터었으며, 정교동심(政敎同心)의 기틀을 향도하여 왔으니, 날이 갈수록 이에 대한 자각과 그 호응도는 더욱 짙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일대겁(一大劫)만에 도래(到來)하는 새 세상임을 간파(看破)하사 새 세상에 맞는 법을 짜서 제시하여 주셨으므로 전 인류가 평화를 건설하고 좀 더 잘 살려면 이 법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남 먼저 이 회상에 참여한 우리는 앞으로 밀려오는 이 대세(大勢)에 대비(對備)하여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아쉬움과 지체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구원겁래(久遠劫來)의 서원(誓願)으로 많은 회성을 펴시고 제도하실 때 자신훈련(自身訓練)으로부터 교도(教徒)훈련, 국민과 인류훈련을 시켜 오셨습니다. 만일 이 훈련이 없으면 불일(佛日)은 희미해지고 법륜(法輪)은 쉬게 되어 암흑(暗黑)과 강급(降級)만을 초래합니다. 반면(反面)에 이 훈련이 쉬지 않으면 어둠에서 해매던 중생들은 광명과 진급(進級)의 길을 걷게 되고 자연 이 세상에는 불국정토(佛國淨土)가 건설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모두가 부처되고 이 지상(地上)에 불국정토를 건설 할 수 있도록 그 설계도를 마련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금년부터 2대말과 대종사님 탄생 백주년까지 공부와 사업의 향상(向上)으로 대보은자(大報恩者)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되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을 통하여 삼대력을 원만하게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정신수양(精神修養=머리의 불을 끄는 방법)에 있어서는 염불(念佛)·좌선(坐禪)·심고(心告)·기도(祈禱)·주송(呪誦)의 과목(科目)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선보(禪步)와 오단호흡법(五段呼吸法)과 법륜대운동(法輪臺運動)과 조석으로 결가부좌선(朝夕結迦趺坐禪)과 무시선(無時禪) 무처선(無處禪)을 하자는 것이니,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탁(濁)하고 불안정(不安定)한 내 마음이 가라앉고 가라앉아 잠심(潛心)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본래面目(本來面目)인 청정법신불(淸淨法身佛)을 찾게 되며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삼세 제불제성(三世諸佛諸聖)과 심심상련(心心相連)이 되고 무궁(無窮)한 대 원천수(大源泉水)가 솟아남은 물론 전 인류의 머리에 타는 불을 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리연구(事理研究=眞理의 눈을 뜨는 方法)에 있어서는 경전(經典)·강연(講演)·회화(會話)·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定期日記) 감각감상(感覺感想) 심신작용처리(心身作用處理) 수지대조(收支對照)의 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론(討論)·상담(相談)·독서(讀書) 등을 하자는 것으로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사리(事理)에 어둡고 불통(不通)한 내 마음이 거듭 밝아 명심(明心)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원만보신불(圓滿報身佛)을 회복(回復)하여 사리간(事理間)에 무애통달(無碍通達)하게 될 것이니 이는 무한(無限)한 대 발전소(大發電所)를 갖게되는 격으로 전 인류의 어두운 마음에 진리의 눈이 뜨여서 밝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작업취사(作業取捨=法度있는 生活方法)에 있어서는 상시일기(常侍日記)·주의(注意)·조행(操行)·예전(禮典) 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삼십계문(三十戒文), 솔성요론(率性要論), 사은사요실천(四恩四要實踐), 작업시간(作業時間=定期訓練時에도 반드시

시 실시)등을 가져서 평행(平行), 중행(中行), 정행(正行)을 하자는 것이니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과속(過速)되고 사곡(邪曲)된 내 마음이 골라지고 정심(正心)이 되어서 결국 백억화신(百億化身)을 나투게 되어 온 인류가 영겁(永劫)을 탄탄대로로 활보하며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학(三學)을 원만히 병진(竝進) 수행하되 차서있게 차분하게 착실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전해 주신 훈련법을 통하여 개인, 가정, 교당, 기관, 총부를 모두 심우실(尋牛室), 목우실(牧牛室), 접목실(接木室), 대적공실(大積功室) 또는 대훈련도량을 삼으며, 자타간에 삼세업장(三世業障)을 녹이는 대용광로(大鎔鑄爐)로 새롭게 단련(鍛鍊)하고 수련(修練)해서 금강(金剛)같이 불괴(不壞), 불매(不昧), 불염(不染)하는 대활불(大活佛), 자재신(自在身)을 연성(練成)하여 천불만성(千佛萬聖)이 짹트게 하고 억조창생(億兆蒼生)의 복문(福門)을 열어주는 무등등(無等等)한 대각도인(大覺道人)과 무상행(無相行)의 대봉공인(大奉公人)인 종사위(宗師位), 대봉도위(大奉道位), 대호법위(大護法位)가 많이 배출(輩出)되어서 만성전(萬聖殿)에 누만대 봉대(奉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훈련에 대한 계획을 교화부에 특별 지시한 바 있으니 전 교무는 물론 재가교도 모두가 그 방침에 적극 참여하여 앞으로 법위향상(法位向)의 대보은사업(大報恩事業)에 낙오됨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대산2집 제5부 대각개교절 경축사>

6. 다짐

- 1)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발표합니다.
- 2) 생활 속에서 발견되어진 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처리내용을 기재하여 죄복을 결산하고 시비이해를 밝히는 연습을 해오기로 합니다.

7.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정기일기에 대한 공부표준을 세우고
매일 매일 심신작용에 대해 발견하고 상황을 기재해 볼 것을 다짐합니다.

8.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작용 처리건을 기재함으로써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고 죄복을 결산할 수 있습니다. 2. 시비이해를 밝힘으로 인해 취사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상시일기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재가·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하는 공부입니다. 3. 상시일기는 제도상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성으로 계속하면 자신의 인격과 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영생을 구원받는 공부법이라는 확신과 기필코 이루고자 하는 서원과 일관된 정성으로 임해야 합니다. 4. 공부를 하다보면 퇴굴심이 나서 형식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환경이나 여건상 중도에 쉬어지는 때가 있다. 하지만 그 것은 수행상에 있어지는 큰 마군이요 함정이라 생각해야합니다. 5. 다시 추어잡아 계속 수행하는 칠전팔기의 분심이 있어야 불보살의 대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6. 상시일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실지 점검과 기재를 통한 공부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준비물	상시일기 워크시트지, 개인 바인더,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p>■ 교화단훈련법회 식순</p> <p>1부 : 개식 - 입장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봉독(정전 제3수행편, 제1절 정기훈련법) - 성가(86장 임 주신 삼십 계문, 조행 일기가)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p> <p>2부 : 교화단 훈련</p>								

■ 주제 설교 : 큰 공부의 실력은 상시일기로!

1. '상시일기란 무엇인가?'

정전에서 상시일기에 대한 정의로 재가·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에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다 하셨습니다. 또한 상시일기는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유무를 기재하는 공부입니다.

대종사 상시일기를 오래 계속하는 제자를 칭찬하시며 말씀하시었다. "상시일기장이 저승의 재판 문서이다. 일생 동안 꾸준히 사실로만 적어 놓는다면 염라국 최 판관의 문초는 틀릴지 몰라도 이 기록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제 스스로 복이 얼마 쌓였는지 죄가 얼마 쌓였는지 미리미리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한평생 일기 공부에만 불식지공(不息之功)을 쌓아도 큰 공부의 실력을 얻게 될 것이다."(선외록 일심적공장 4절)

2. 상시일기에 대한 이해

상시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 합니다.

1) 유무념 처리

유념·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유무념 처리는 바로 주의입니다. 주의할 내용을 실행하는 것은 조행이고, 주의한 것을 제대로 실행했는가를 기재하는 것은 상시일기입니다.

2) 학습상황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학습상황은 내가 몇 시간, 몇 시간, 무엇 무엇 했다는 것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회와 선은 참석 했는가 못했는가를 기재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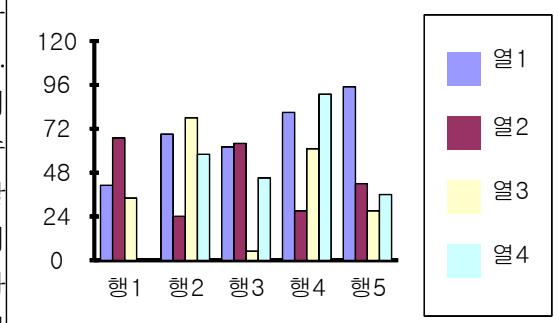
3) 계문의 범과 유무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기재 합니다. 범과 유무를 기재하면서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일주일등의 형식을 빌어서요.

3. 상시일기의 실행

1)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유형의 세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기입니다. 비로소 마음의 흔적을 체크함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람을 발명한 사람이 있듯이. 무형의 마음을 일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대단하지요? 사회에서 보면 벤자민 프랭클린 일기장을 본 뒤 판매를 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체크리스트, 기준표 이런 체크 방식에 매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적당히 하기 때문이지요.

2) 정확히 안하니까, 주먹구구로 대충 하니까, 얼버무리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 일을 정성으로써 진행했을 때 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요. 다시 말해 복은 정확한 일 처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공이 함께 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면 틈이 생기고 불량이 생기고 복은 점점 멀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상시일기 . 주의(注意) . 조행(操行) . 참회 등은 과거 현재의 모든 악을 고쳐서 선을 실행하는 공부인바 극치에 이르면 대중도행 . 대보은행 . 대원만행 등의 덕행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된 뒤에도 늘 계속 정진해야 상(相)없는 무위이화의 덕화(德化)가 나타날 것이다. <정전대의 9. 삼학 중>

4) 작업취사 공부는 ①유무념 대조하는 공부, ②계율을 잘 지키는 공부, ③육근 동작을 바르게 하는 공부, ④조심하는 공부, ⑤남을 유익주는 공부, ⑥겸양의 도를 실행하는 공부, ⑦넉넉한 처사를 본 받는 공부, ⑧중도(中道)를 잡는 공부,

⑨상(相)을 없애는 공부 ⑩심신을 원만하게 쓰는 공부인 바, 안으로 취사하는 데 있어서는 참회, 주의, 실행(實行), 결단력(決斷力), 상시일기(常時日記) 및 연구(研究)와 수양(修養)이 있어야될 것이다. (대산2집, 제1부 교리, 삼학공부)

5) 작업취사(作業取捨=法度 있는 生活方法)에 있어서는 상시일기(常時日記)·주의(注意)·조행(操行)·예전(禮典) 과목을 원칙으로 하고 삼십계문(三十戒文), 솔성요론(率性要論), 사은사요실천(四恩四要實踐), 작업시간(作業時間=定期訓練時에도 반드시 실시)등을 가져서 평행(平行), 중행(中行), 정행(正行)을 하자는 것이니 이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과속(過速)되고 사곡(邪曲)된 내 마음이 골라지고 정심(正心)이 되어서 결국 백억화신(百億化身)을 나투게 되어 온 인류가 영겁(永劫)을 탄탄대로로 활보하며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산2집, 제5부 대각개교절 경축사, 정기 상시훈련으로 삼대력 갖추자中)

■ 교화단 훈련 : 상시일기 기재 (50분)

1. 상호 인사

2. 훈련 안내

3. 1분 禪

4. 체험활동 <워크시트지 제공>

1) 오늘은 상시일기 중 유무념 처리에 대해 함께 활동해보겠습니다.

2) 유무념 조목을 선정합니다.

먼저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으로 나누어 선택합니다. 조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자신의 근기와 생활환경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유무념 공부)

② 하루의 중요한 일과를 유무념 공부 과목으로 정하고 처음에는 일단 멈추고 안 멈추고에 표준하고 조금 지나면 일과의 결과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를 표준 한다.

③ 하루의 일과를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등 넷으로 구분하여 일이 잘되고 못 된 것으로 점검한다.

④ 특별히 일과나 건수를 정하지 않고 당하는 일마다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여 그 결과가 잘되고 못된 것을 점검하는 무시선 그대로를 표준 하여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⑤ 하루를 한 건으로 잡고, 기상에서 취침까지 한 때도 한 건도 잘못된 것이 없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여 잘되었으면 유념, 한 건이라도 한 때라도 잘못되었으면 무념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

⑥ 표준을 단계적으로 잡고 하되 그때 그때 마음을 챙겨서 유무념을 공부 삼아서 습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체로 유무념 대조 그 자체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3) **유무념 조목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봅니다.** 실행방법과 실행기간을 정해봅니다.

4) **실행목표**를 정해봅니다.

5) **유무념 기재방법**을 정해봅니다. 기재도구는 무엇을 활용할지, 기재방법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5. 관련법문 봉독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 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正念)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 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조케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조케 하시니,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 데 지나지 않나니라.]<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3장>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업취사는 마음을 잘 쓰는 공부요, 유무념 대조하는 공부요, 계율을 잘 지키는 공부요, 육근 동작을 바르게 하는 공부요, 조심하는 공부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공부요, 겸양하는 공부요, 넉넉한 처사를 본받는 공부요, 중도를 잡는 공부요, 상을 없애는 공부요, 심신을 원만하게 쓰는 공부니라.」 <대산법어 제2교리편 58장>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상시 응용 주의 사항 6조는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공부법이요, 사람을 새롭게 바꾸는 묘방인 동시에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대도 정법이니라. 제1조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동시 삼학(動時三學) 공부로 일을 당할 때마다 멈추는 공부를 하여 일심 정력을 쌓고, 멈춘 후에는 다시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지각을 얻고, 또 옳은 판단을 얻은 후에는 바로 취사를 해서 결단 있는 실천을 하자는 것이요, 제2조는 미리 연마하고 준비하는 여유(餘裕) 공부로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 물심 예측을 잘 하자는 것이요, 제3조는 묻고 배우는 대성(大成) 공부로 천지는 법이요 산 경전이라,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공부하는 대중을 놓지 말고 경전과 스승을 정하여 사제 훈도로 늘 묻고 배우자는 것이요,

제4조는 의심을 풀어내는 정각(正覺) 공부로 일과 이치 간에 의심 건을 하나씩 적어두고 어미 닭이 알을 품듯 알맞게 혜두를 단련하여 의심을 풀어내자는 것이요, 제5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정려(靜慮) 공부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복잡한 신경을 쉬고 마음을 텅 비우는 염불·좌선·심고·기도·송주의 시간을 가져 마음을 고요하게 하자는 것이요, 제6조는 반성 대조하는 성찰(省察) 공부로 일을 지낼 때마다 반드시 반성을 하여 시비를 감정하고 취침 전에는 일기 기재와 유무념 대조로 그날의 죄복을 결산하고 다시 한번 본원을 쟁기자는 것 이니라. 대종사께서는 과거에는 천 생에 할 공부를 이 회상 이 법으로는 단생에 할 수도 있고 평생에 할 공부를 정성만 들이면 쉽게 이를 수도 있다고 하셨나니, 이 당시 응용 주의 사항 6조 공부야말로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신 공부법이니라.」 <대산법어 제2 교리편 65장>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생활 속에서 한 마음을 끊임없이 쟁기는 공부로 유무념 대조 공부를 일러 주셨나니, 유무념 대조 공부는 성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을 찾고 한 마음을 길들이고 한 마음을 잘 쓰자는 공부인바, 한 마음을 쟁기면 한없는 광명의 길, 진급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갈 것이요, 한 마음을 놓으면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해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대산법어 제2 교리편 69장>

6. 다짐

- 1) 상시기간 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합니다.
- 2) 상시기간 동안 실천해 보고 현재시점에서 변화된 정도에 대해 체크해 오기로 합니다.

7.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상시일기에 대한 공부표준을 세우고
매일 매일 유무념 공부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8.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무념 공부를 통해 자신의 공부 정도를 확인하고, 진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느낌 공유하기를 통해 각자의 공부 내용을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사실적 교법 실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별첨 – 상시일기 워크시트지 : 유무념 처리】

- ▶ 상시일기 – 유무념처리,
학습상황(수양연구 시간 수, 예회입선 참석여부),
계문의 범과유무

1. 유무념 조목

- 하자는 조목 :
교법대로 – 정전을 모시고, 정전을 봉독하고, 정전을 실천하고
- 말자는 조목 :
교법 아닌 모든 것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말고<예:계문>

2. 유무념 조목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

- 실행방법 :
- 실행기간 :

3. 실행목표

4. 유무념 기재방법

- 기재도구 :
- 기재방법 :
- 기재시기 :

5. 현재시점에서 변화된 정도

6. 유무념 실천을 통해 느낀 감상

[조행 실습]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조행 공부의 교리적 위치와 개념을 다시 점검한다. 2. 원불교 교도로서 교당 생활의 기초적 예절을 다시 점검한다. 3. 교당 공동체가 조행의 표준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조행을 실천한 공덕을 체험한다.					
준비물	전서, 죽비 원불교 교도의 기초 예절 유인물(원불교 의견실무 편람 부록 참조),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범어봉독(정전 제3수행편 정기훈련 中 조행) - 성가(86장 임 주신 삼십 계문)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40분) 2부 : 교화단 훈련 (50분)						
■ 주제 설교 :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 : 원불교 교도의 품격 ※ 주제법문 : 정전 제3수행편 정기훈련 中 조행 (20분)						
1.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 오늘은 조행을 주제로한 교화단 훈련법회입니다. 훈련 주제에 맞추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날 목사 한사람이 대종사님께 찾아와 계율이 제도의 문을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공부인의 공부 정도에 맞추어 한 계단씩 밟아가는 우리의 삼십 계문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 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法網)이 정연히 벌여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 일정을 조심하여 짧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대종경 교의품 25장>

대종사님께서는 인도에 탈선됨이 없도록, 일동 일정을 조심하여 짧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에 탈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2. 정전에 밝혀진 조행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할 길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법률과 도덕을 지키는 것, 계문을 범하지 않고 보은행을 실천하는 것, 정의는 죽기로써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써 버리는 것 등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훈련법에는 이러한 길을 실천해 가는 것, 탈선됨이 없게 하는 것이 ‘조행’이라는 이름의 과목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정전 제3수행편 제1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정기훈련 과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법어 봉독 시간을 통해 대종사님께서 밝혀 주신 조행의 뜻을 세겨 보았는데요. 바로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가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공부인이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의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어 하기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3. 공부의 실효과를 얻어 갑시다.

우리가 조행을 훈련하는 방법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을 가지기 위한 우리의 공부를 늘 대조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정신을 개벽하는 공부, 일원상 진리에 부합하는 공부, 혜복을 장만하는 공부의 실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밟아야 할 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법의 훈련을 받기 위해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에서 함께 지켜야 할 도가 있습니다.

오늘 교화단 훈련을 통해서 교도로서 지켜야 할 도를 다시금 점검하고 원불교 교도의 품격을 더욱 가꾸어가는 시간되기를 염원합니다. 나아가 교도님들께서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조행을 통해서 처하는 곳마다 은혜를 나누시고,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만들어 주실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교화단 훈련 : 원불교 교도의 기초 예절(50분)

1. 상호 인사

(교화단별로 장소를 정리하고,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2. 훈련 안내

훈련 주제를 안내하고, 진행 방식을 안내합니다. 원불교 교도의 기초 예절 유인물(별지)을 배부하고, 봉독 후 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화 시 평소 실행을 점검하는 내용을 주로하고, 신입교도가 있다면 기존교도와 문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1분 기도 명상

4. 원불교 교도의 기초 예절 점검 및 이해

- 1) 대각전에서의 예절 : 교당, 교당에 갈 때, 교당에 오면 반드시 먼저 법신불 일원상 전에 헌배(출입시 입구에서, 불단에 올라, 불단 밑에서), 가족이나 새로운 교도를 모시고 왔을 때, 촛불을 밝힐 때, 향을 태울 때, 불단 오르내릴 때, 대각전 정숙, 조석심고(교재 내용을 합독하고 합독 후 회화)
- 2) 예회에서의 예절 : 교전지참, 정숙, 시작 5분전 도착 착석, 예회 전 법신불 참배 후 기도 혹은 입정이나 교전 묵독, 독경성가, 신입교도 챙기기, 교도 상호간 인사, 출석, 4축2재 참석 (교재 내용을 합독하고 합독 후 회화)
- 3) 절하는 법 : 대례와 소례(앉아서, 서서), 평절, 단체로 불전이나 영전 절, 의식 진행 중 불전헌배, 불단출입 시 측면으로 오르기
- 4) 교전을 대할 때 : 경건하고 소중하게, 던지거나 넘어가지 않는다 등
(교재 내용을 합독하고 합독 후 회화)

5.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소중한 법연들과 서로 조행 공부의 거울이 되고,
조행으로 나날이 법정이 더욱 두터워지고
경건하고 배려심 넘치는 교당 생활하기를 다짐합니다.

6.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정의의 대의를 분명히 밝히는 원불교의 가풍을 확인하고 실행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 2. 신입 교도와 기존 교도 모두 교당 생활의 표준을 세우고, 표준에 맞게 실천하여 공부의 공덕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한다.
------	---

【별첨 - 조행실습 별지】

<대각전에서의 예절>

- 교당 : 법신불을 모신 신성하고 청정한 도량, 기도도량, 수도도량, 참회도량
- 교당에 갈 때,
 - 단정한 옷차림
 - 절을 하거나 앓기에 편안한 복장
 - 펠기도구 및 교전 지참
 - 늦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 형편에 따라서 현공금 미리 준비
 - 깨끗한 불심과 법신불에 대한 경외심
- 교당에 오면 반드시 먼저 법신불 일원상 전에 헌배해야 한다. 대각전이나 불단이 있는 실내를 출입할 때는 입구에서 불단을 향하여 합장 경례한 다음 출입한다. 가능하면 불단에 올라 헌배를 하고, 헌배를 하기 전에 촛불이 밝혀져 있으면 향 하나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고 큰절을 네 번 한다. 경우에 따라서 두 번으로 줄여서 절을 해도 결례가 아니다.
- 때로는 불단 밑에서 법신불 전에 절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각전(법당)이 마루로 되어 있다면 엎드려서 하고, 신발을 벗지 않는 곳이라면 서서 상체를 90도 각도로 굽혀 절한다. 혹 마루로 되어 있는 대각전이라 해도 서서 상체를 90도 각도로 굽혀 절을 하여도 결례는 아니다.
- 가족이 함께 왓거나 새로운 교도를 모시고 왔을 때는 되도록 불단에 올라 4배를 하는 것이 마음을 경건하게 하므로 신앙심을 기르는 데 좋다.
- 촛불을 밝힐 때 성냥을 사용할 경우, 성냥 재가 불단에 떨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 향을 태울 때는 향 중간을 잡아 향 끝을 촛불 끝에 대면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다. 향에 불이 붙으면 향로에 천천히 꽂으면 된다.
- 불단에서 내려올 때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법신불 전에 예를 갖추고 내려오며, 대각전을 자주 출입할 때에도 그때마다 합장하고 법신불 전에 경례를 올린다.
- 대각전에서는 정숙해야 한다. 목소리를 낮추고, 발걸음도 가볍게 하여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 교당은 새벽 5시와 저녁 9시 30분에 심고를 올린다. 심고는 목탁으로 신호하는데, 시작 할 때는 세 번, 끝날 때는 두 번 올린다. 심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대중이 조석 심고를 올려야 할 경우에는 외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낳게 하기 위해 혹 죽비로 신호를 하는 일도 있다.
- 교도들은 교당이나 교당 주변에서 심고 목탁 소리를 들을 경우, 모든 일손을 멈추고 합장한 상태로 법신불 쪽을 향해 심고를 올려야 한다. 또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심고를 올려도 된다.

<예회에서의 예절>

- 예회(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당에 올 때는 꼭 「교전」을 가지고 와야 한다.
- 예회를 보기 위해 교당에 오면 입구에서부터 정숙을 기해야 한다.
- 예회 시작 시간 5분 전에는 대각전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는 것이 예회 분위기에 좋다.
- 예회 날에 대각전에 들어서면 다른 교도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서서 전 법신불 일원상 전에 큰절로 또는 상체를 90도 각도로 굽혀서 경례한다. 그 횟수는 네 번으로 하고 자리에 앉으면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하거나 입정 또는 교전을 묵독하는 것이 좋다.
- 독경할 때는 목탁의 운곡에 맞추어 하고, 성가는 반주에 맞추어서 부른다.
- 새로 온 사람이나 자신이 입교시킨 사람을 옆에 앉게 하여 예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줘야 편안한 모습으로 예회에 임할 수 있으며, 다음에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 교도 상호간에는 합장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원불교의 예절이다.
- 교도들은 모든 예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회는 정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축2제에는 꼭 참석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절하는 법>

- 절에는 대례(큰절)와 소례(평절)가 있다. 큰절이나 평절이나 간에 앉아서 하는 절과 서서 하는 절이 있다.

앉아서 하는 절의 경우, 큰 절은 오체(五體-머리, 두 손, 두 무릎)가 바닥에 닿아야 하고, 평절은 두 손과 두 무릎이 바닥에 닿게 하고 머리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 서서하는 절의 경우, 큰절은 허리를 90도로 숙여하고, 평절은 45도로 숙인다. 앉아서 하는 절은 합장을 하고 먼저 무릎을 끊고 손과 허리가 같이 굽게 하는데 발은 발등이 바닥에 닿게 하고, 엉덩이는 발뒤꿈치에 붙여야 한다.

불전이나 탑묘, 웃어른에게는 큰절을 하고 평교간에는 평절을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신불 전에 큰절로 4배를 하고, 절에 모신 부처님께는 큰절로 3배를 하며, 살아 계신 분에게는 한 번, 돌아가신 분 앞에는 재배를 한다.

- 단체로 불전(佛前)이나 영전(靈前)에 절을 하게 될 때는 한 사람이 대표로 분향을 하고, 모두가 합장하고 절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엎드려 절을 하되 서로 엎드리고 일어나는 것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다. 주의할 것은 심고를 올린다고 오랫동안 서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불전에 나아가 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식의 시작 5분 전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의식이 진행 중이면 불단에 올라 절을 하는 것을 삼가고, 설사 의식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밖에 행사장이 마련되었을 경우는 불전에 올라 절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 절을 하기 위해 불단에 올라야 할 경우에는 불단의 왼쪽과 오른쪽을 이용하는 것이 예에 맞다. 절에 갔을 경우에도 부처님이 정면으로 보이는 앞문을 이용하지 않고 옆문을 이용하는 것이 예에 바르다.

<교전을 대할 때>

- 법신불과 대종사님을 모시듯 경건하고 소중하게 한다.
- 던지거나 넘어가지 않는다.
- 환자가 아닌 이상 누워보지 않는다.
- 전서 위에 다른 책이나 물건을 올려 놓지 않는다.
-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정갈한 곳에 둔다.
-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보고 교전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한다.

※ 의전문화연구회, 『원불교 의전실무 편람』, (2009), 266~269쪽

[조석심고]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교도 사종의무로서 조석심고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실된 신앙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2. 자신의 기도문을 스스로 작성하여 심고 옮기게 함으로써 신앙·수행의 깊이를 더합니다. 3. 조석심고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 자력과 타력을 함께 하는 것이 진리의 위력을 얻는 길임을 각성케 합니다.		
준비물	A4 용지, 개인 바인더,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 봉독(정전 수행편 심고와 기도) - 성가(92장 아침기도의 노래, 93장 저녁기도의 노래)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2부 : 교화단 훈련

■ 주제 설교 : 그대여!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 주제법문 :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1장(20분)

1. 심고와 기도는 <정전> 수행편에 그 공부길이 자상히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만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습니다.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난경을 당할 때, 순경을 당할 때마다 심고와 기도를 하자” 하셨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으로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은 조석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조석심고를 올릴 때에 우주의 진리와 자신이 부합이 되어 크게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가. 얼른 생각에는 마음으로 잠간 고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드나니, 그대들은 심고할 때 뿐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움직임에 주의 하며, 조석 심고를 일심으로 드리는 것이 큰 공부가 되고 큰 위력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동란을 우리가 무사히 넘긴 것은 우리 대중이 일심으로 심고 올린 위력에도 크게 힘입었나니, 우리가 낱 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교단이나 나라나 세계가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나니라.”

3. 심고의 원리 곧 진리불공의 원리와 같습니다.

○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대종경 교의 품 4장>

○ 형상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 법신불전에 올리는 불공입니다. <대종경 교의 품 16장>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법계에 스며든다는 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낱 없는 마음으로 남을 위하고 상 없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그 기운으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그러므로 진리불공인 심고를 하기 위해서는

- ① 몸과 마음을 재계(齋戒)하고
- ②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소원을 세운 후
- ③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 ④ 선정, 염불, 송경, 주문 등을 외어 일심을 정성을 올립니다.<대종경 교의 품 16장>

4. 심고시 유념사항

이러한 심고의 원리에 바탕해 조석심고를 올릴 때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조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사는 이 순간에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과 삼세제불제성, 삼세일체부모선조의 은혜와 호念佛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석심고는 법신불 사은님과 기운을 연합으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길이 되며, 제불제성과 마음이 연합으로써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서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 2) 우리 모든 재가출가 교도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감사와 서원의 다짐을 올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는 감사와 참회와 서원을 다짐하는 심고를 올립니다.
- 이것이 바로 수도인의 일과입니다.
- 3) 조석심고는 일원상 진리 앞에 서원을 올리는 약속이요, 다짐이기에 거짓 원(願), 여행심, 배은망덕, 살생, 원증(怨憎), 조급(躁急)을 금기합니다. 항상 청정한 마음과 지극하고 진실된 정성으로 임합니다.
- 4) 조석심고를 지성으로 올리면 진리와의 대화 통로가 열려 진리와 합일하고 진리의 감응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이 나날이 새 마음, 새 생활로 개척됩니다.
- 5) 조석심고는 일심과 위력과 정력을 아울러 얻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심고와 기도도 좋지만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덕이 더 크다 하셨습니다.
- 6) 조석심고를 위해서는 늘 척 없는 말을 하고, 여진 있는 행을 하며, 인류가 평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조석으로 사심 없이 기도를 드리면, 자기 마음이 대자 대비한 부처님 심경을 이루어 자기에게 먼저 이익이 돌아오고, 그 소원이 마침내 달성되어 대중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 ※ 항상 심고할 때에 세상을 좋게 하며, 동지들을 좋게 하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좋게 하기로 심고하라. 천하와 동지의 고락을 자신의 고락으로 알고 나아가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상통하여 큰 성공을 보나니라.(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0장)
- 7) ‘천지하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는 천지에 다북 차 있는 진리가 바로 하감하시도록, ‘부모하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는 삼세일체 부모가 하감하시도록, ‘동포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는 사농공상과 유정무정의 일체 동포가 빠짐없이 응감하시도록, 법률응감지위! 고 염원할 때에는 도덕 . 정치 . 과학의 일체법률과, 역대 유명 무명의 모든 성현 및 입법 치법의 은이 다 응감하시도록 정성스럽게 올려야 하며 평소부터 먼저 척을 푸는 동시에 보은행에 힘쓰며 배은을 아니하여야 사은 전체가 내게 감응해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8) 조석심고는 새벽 5시에, 저녁심고는 저녁 9시3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침은 기상과 함께, 저녁은 취침 전에 올립니다. 단 조석심고는 유념공부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시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

9) 심고의 시작은 목탁이나 죽비를 세 번 쳐서 알리고, 1~3분정도 모시며 목탁이나 죽비를 두 번 쳐서 끝을 알립니다. 이때 법신불전에 두 번 절을 올리며 첫 번째 절은 법신불과 대종사님, 나의 정신을 열어주신 삼세제불제성님께 올리고, 두 번째 절은 이 몸을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삼세제불제성님께 올리고, 부모 선조께 감사를 올립니다.

10) 심고는 말없이 마음으로 진리 전에 고하는 묵상심고와, 마음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여 함께 올리는 설명기도가 있습니다.

11) 아침기도의 노래, 저녁기도의 노래 – 아침은 은혜로운 하루를 맞게 해주신 것에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저녁은 은혜속에 하루를 지낸 것에 감사와 참회 반조를 기도합니다.

■ 교화단 훈련 : 자신의 심고문 작성하기(50분)

1. 상호 인사

2. 훈련 안내

3. 1분 기도 명상

4. 법어봉독(관련법문, 택 1)

1) 기도의 방법은, 첫째, 근원을 알아서 해야 한다. 기도를 할 때에 괴목이나 바위나 신 등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할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의 본원인 법신불 일원상 진리를 향하여 드려야 한다.

둘째, 정성을 드려야 한다. 정성을 드리는 데에는 ①청정히 할 것이니 기도의 도량을 청정하게 청소하고, 몸을 재계하고 의복을 깨끗하게 입을 것이며, 계문을 잘 지키어 정신을 청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②해원(解冤)을 할 것이니 원망하고 미워하며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원진이 있어 기운이 막혀 있으면 감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③사욕을 품지 말아야 할 것이니 우주의 기운은 지공 무사하므로 사욕이 들어 있으면 감응할 수 없으니, 오직 공변된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④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니 기도할 때에 법신불 전에 고백한 조항은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서운 별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력을 얻는 것이다. 철저한 신념으로 오래오래 계속하여 정성을 드리면 자연히 법신불의 위력을 얻게 되어 시일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게 될 것이다." <한울안한이치에 일원의 진리 18절>

2) "심고와 기도를 하는 데에도 자력과 타력이 겸해야 할 것이니, 심고의 내용이나 기도

문에 법신불께 호소하고 간청만 하는 것은 타력에 치우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각오와 실천할 것을 먼저 고백하고 거기에 대하여 위력을 내려 주시도록 기원해야 자타력을 겸하고 사실적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심고와 기도가 되리라."

<한율안한이치에 일원의 진리 19절>

- 3) 「기도를 올릴 때에는 일심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낙망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되, 특별 기도 중 혹 병이 날 때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할 것이니라.」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9장>

5. 체험활동(40분)

1) 회화 1(20분)

-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심고와 기도는 몇 번이나 했는지 번수와 내용을 적어봅니다.
- 하루 일과 속에서 심고와 기도를 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조석심고, 식사공양, 정진기도....)
- 조석심고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심고문 작성하기(10분) - 각자의 심고문을 실심으로 적어봅니다.

3) 회화 2(10분)

- 감상 및 다짐
- 공동유무념 정하기(함께 하는 기도 : 세상, 교단, 교당, 가정, 자신)
- 단별 유무념 : 조석심고 알림, 공동 기도사항

6.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조석심고로 진리와 법맥을 이어가기를 다짐하고, 매일 매일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과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7. 폐식

기대효과	1. 교도사종의무의 하나인 조석심고를 통해 지성이면 감천의 위력을 체험케 합니다.
	2. 법신불 사은전에 구체적으로 서원을 세운 후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진리불공을 체험케 합니다.
	3. 일원상 진리를 믿어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통해 복락을 구하는 증거를 체험케 합니다.

[불공하는 법]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이해한다. 2. '부처 모시기' 연습을 한다. 3. '불공하는 법' 연습을 한다.					
준비물	A4 용지, 개인 바인더, 필기도구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 봉독(대종경 교의품 4장) - 성가(71장 온 천지 일체 만물)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2부 : 교화단 훈련						
■ 주제 설교 : 모두가 부처이니 부처로 모시자!						
※ 주제법문 : 대종경 교의품 4장(20분)						
1. 처처불상의 개념						
1) 처처의 개념						
● 처처 = 모두 = 일체 = 우주 만유 = 천지 만물 + 혀공 볍계						
●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u>우주 만유</u> 로서 <u>천지 만물 혀공 볍계</u> 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대종경, 교의품4장)						
2) 불상의 개념						
● 불상 = 법신불						
● 법신불의 작용 : 무한 은혜, 죄복 권능, 불성						
3) 처처불상의 개념						
①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處處佛像)이요, 일일이 불공법(事事佛供)이라, (정전, 불공하는 법)						

②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이다.

-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 하며,

(대종경, 교의품14장)

-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대종경, 교의품4장)

-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대종경, 서품15장)

③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에서 구한다.

-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 숭배와 일원상 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이까.]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에 구하게 되며...]

(대종경 교의품 12장)

④ 마음이 곧 부처이며, 성품이 곧 법이다.

*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 하자는 것이요, (정산법어, 원리편 3장)

2. 쳐처불상의 내용

1) 일체 = 우주 만유 = 천지만물 + 허공법계 = 법신불의 응화신

- 모두가 부처(법신불)

= 일체가 부처(법신불)

= 우주 만유가 부처(법신불)

=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부처(법신불)

- 우주 만유

= 천지 만물 + 허공 법계 = 일체

=> 법신불의 응화신

2) 법신불과 나와의 관계

- 법신불은

= 법신불의 응화신인 우주 만유는

= 천지 만물 허공 법계는

① 은혜불 :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부처님 (정전사운)

② 권능불 :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의 부처님 (대종경 교의품 8장)

③ 자성불 :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성품이 법인 자성의 부처님 (법어 원리편 3장)

3) 일원상 진리와 쳐처불상의 관계

- 일원상 숭배, 일원상 신앙은

-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모시는 것이다. 쳐처불상이다.

-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송배 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하므로 무슨 서원 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일원상을 송배하자는 것이니라. (대종경, 교의품14장)

-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대종경, 교의품4장)

3. 사사불공의 개념

1) 사사의 개념

- 사사 = 일마다 = 육근동작의 일체
=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
= 대상을 향한 의지적 작용

2) 불공의 일반적 개념

- 불공 : 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국립국어원 사전)

3) 원불교 불공의 개념

- 불공 : 부처님으로 모심
=> 부처님 = 우주 만유 전체가 부처님
=> 우주 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심
① 은혜불 : 우주 만유 전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부처님으로 모심 (정전 사은)
② 권능불 :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의 부처님으로 모심 (대종경 교의품 8장)
③ 자성불 : 우주 만유 전체가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성품이 법인 자성의 부처님으로 모심 (법어 원리편 3장)

4) 보은 즉 불공

- 감사, 공경, 사랑 -> 보은 = 불공
① 은혜의 부처님께 : 늘 감사하고 보은하는 것이 불공
 감사의 마음 없이 보은 없고,
 보은 없이 불공 없다.
② 권능의 부처님께 : 늘 공경하고 보은하는 것이 불공
 공경의 마음 없이 보은 없고,
 보은 없이 불공 없다.
③ 자성의 부처님께 : 늘 사랑하고 보은하는 것이 불공
 사랑의 마음 없이 보은 없고,
 보은 없이 불공 없다.

4. 사사불공의 방법

1) 불공을 올리는 이유는?

- 죄복과 복락을 구하기 위함 (대종경 교의품 4장)

2) 불공을 누구에게 올리나?

- 처처불상 = 우주 만유 = 법신불의 응화신

=> 법신불의 응화신인 우주만유의 부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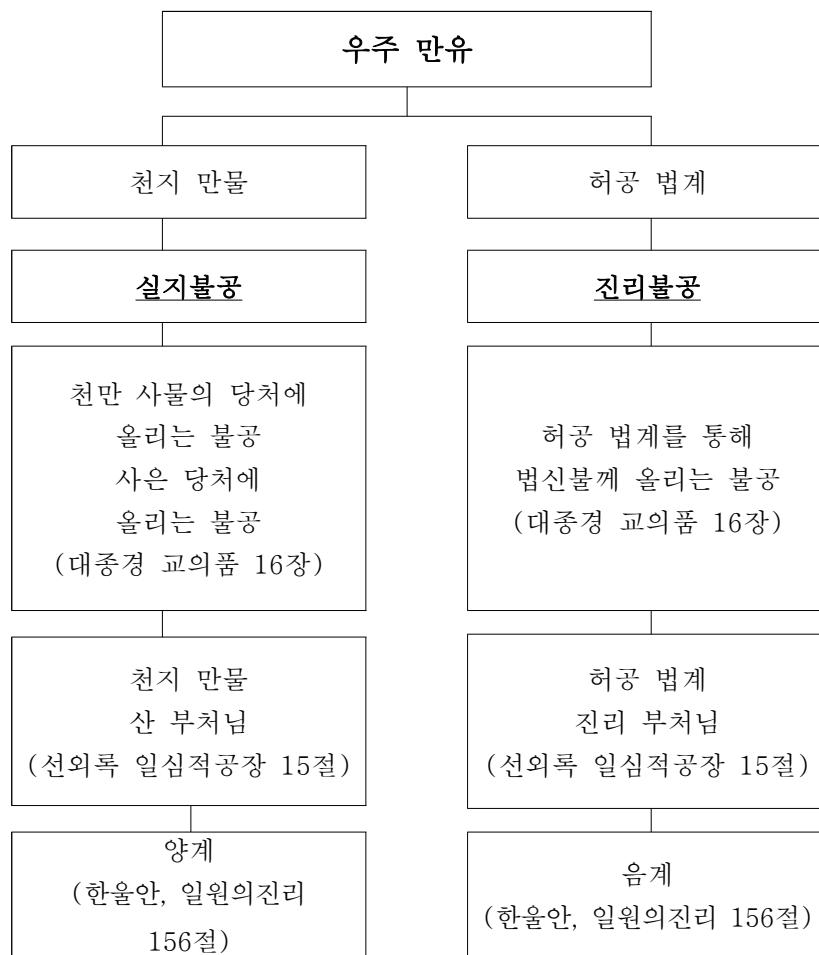
죄복과 고락의 근원처에...

- 천만 사물의 당처에...(대종경 교의품 5장)

- 사은 당처에...(대종경 교의품 16장)

- 허공 법계를 통해 법신불께...(대종경 교의품 16장)

3) 불공의 방법 두 가지



■ 교화단 훈련 : 불공하는 법 연습(50분)

1. 처처불상 연습 (10분)

- ‘처처불상 발견하기’ 연습을 한다.
- ‘부처님 바라보기’ 연습을 한다.

2. 죄복의 권능 알기 (15분)

- 죄와 복을 지은 사람은 나 자신이지만
- 죄와 복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은
- 바로 내 앞의 상대임을 확인한다.

3. 영원한 복을 위한 불공 계획 세우기 (50분)

- 받고 있는 복이 계속되는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에게 어떻게 불공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운다.
- 받고 있는 죄별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려면 그 죄별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에게 어떻게 불공을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운다.

4. 생활 속에서의 ‘불공하는 법’ 실천 안내 (10분)

- 일상 생활 속에서 ‘불공하는 법’ 실천을 위한 과제를 제시

5. 설명기도

- 설명기도로 모두를 부처로 모시겠다는 마음을 모으고,
불공하는 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심고를 올립니다.

6.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원불교 신앙의 핵심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원불교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원불교 신앙인으로서 생활 속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시응용주의사항]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상시응용주의 사항의 뜻과 대의(의미, 중요성)를 안다.(동기유발) 2. 각 조목을 실천한 사례, 실행하지 못한 사례를 나눈다.(현재상 태점검) 3.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구체적(단계적)으로 실천할 계획을 세운다. 4. 상시응용주의 사항의 실천을 카톡으로 공유하고 서로 챙긴다.		
준비물	교전, 정전대의, 포스트잇, 전지, 매직, 네임펜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 1부 : 개식 - 입정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봉독(정전대의 12. 상시응용 6조공부) - 성가(70장 온 천지 그대로가)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40분)
 2부 : 교화단 훈련 (50분)

■ 주제 설교 :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통해서 하신 공부길 상시응용 6조 공부

좌산상사님께서는 ‘일과로 득력하자’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생이요, 영생이 오늘 하루에서 좌우된다. 그때 그때의 일과를 허송하면 빈 껍질만 남아 결국 영생사를 그르치게 된다.’ 이러한 이소성대의 이치는 불변의 진리요,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발전시키신 원리요, 또한 당신이 성불하신 길입니다. 성불이 어느 산속에서 독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설사 그렇게 얻은 힘이라도 실생활에 활용되지 못하면 쓸모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을 떠나지 않고 바로 각자 생활 즉, 가정과 직장, 교당, 사회생활 속에서 일도 성공하고 동시에 삼대력을 얻어 성불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공부입니다. 상시란 평상시오, 응용이란 경계를 응하여 육근을 사용하는 것이오, 주의란 하기로 한 일과 안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경계를 대하여 육근을 사용할 때 잊어버리지 않고 이 6 가지 조목을 챙긴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변의품 26장에서 이 상시응용 주의 사항은 곧 삼학을 분해하여 제정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5조는 정신수양, 2·3·4조는 사리연구, 1조는 작업취사, 6조는 이 삼학공부를 실행하고 아니한 것을 살피고 대조하는 길이라 밝혀주셨습니다. 즉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실천하면 삼대력이 저절로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동정으로 나누어서 보면 3·4·5조는 정할 때 공부로 동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되고, 1·2·6조는 동할 때 공부로 정할 때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상시응용주의 사항은 일상생활 속에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삼학 공부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 조목의 뜻과 중요성, 실천 방법을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정전대의에 바탕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략-교무님 재량, 시간에 따라 대체를 설명하고 교화단 시간에 활동할 조목에 선택과 집중할 수도 있음)

- 오늘 법회 1부 끝나고 바로 이어서 2부 교화단 훈련 시간에 각단 단장님을 중심으로 상시응용주의 사항의 각 조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교화단 훈련 : 나의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공부

1. 상호 인사

2. 입정

3. 포스트잇에 각자의 사례, 실천계획 등을 붙이고 설명하기

예) 1조 공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공부 – 멈추는 공부, 생각하는 공부, 실행하는 공부’라고 제목을 붙인 전지에 아래 순서에 따라 각자 자신이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고 설명하게 한다.

1. 먼저 각자 평소 생활 속에서 온전한(멈춤) 생각으로 취사(실행)가 안 되었던 경계를 포스트잇에 써서 1건 이상 썩 전지에 부착하게 한다. 아울러 그 실행이 잘 되었던 사례도 1건 이상씩 부착하게 한다.

2. 전지에 부착한 사례를 통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의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유도한다.

3. 교무는 전체 설명을 듣고, 종합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주고, 또한 그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부쳐되는 법임을 강조한다.
4. 다음은 앞으로 1조 공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포스트잇에 써서 각자의 공부 계획을 써서 부탁하도록 한다. 어떤 경계에서 마음을 멈추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쓰도록 안내한다.
5. 각자 부착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한다.
6.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연마, 경전 법규 연습, 의두 연마, 염불좌선, 실행반조 조목 중에서 시간에 따라 적절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실행 계획 등을 공유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7. 한주 또는 한달 단위로 한 조목 한 조목씩 집중적으로 실천해보는 공부, 또는 한 조목에서 한주, 한달 간격으로 추가적으로 조목을 더 실천해가는 공부 등으로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모두 다 실천해 가는 방법을 안내한다.
8. 한 주 동안 실천할 조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으면 그 실천 사례를 다음 법회 전 금요일까지 교무님을 포함한 단 카톡방에 올리기로 약속한다. 교무님과 단장, 단원들은 카톡에 댓글을 달아준다.

4.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다짐하고,
매일 매일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통해 불보살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5.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응용주의 사항의 뜻과 중요성을 알게 된다. 2. 각 조목마다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된다. 3. 단원들이 서로 공부를 공유하고 서로 챙기고 분발하는 계기가 된다.
------	---

[일상수행의 요법]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9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일상수행의 요법의 뜻과 대의(의미, 중요성)를 안다.(동기유발)각 조목을 실천한 사례, 실행하지 못한 사례를 나눈다.(현재상태점검)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유무념 실천 조목을 정한다.유무념으로 실천한 사항을 카톡으로 공유하고 서로 챙긴다.					
준비물	교전, 정전대의, 메모지, 사인펜, 추첨함(박스), 선물1개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장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 봉독(대종경 수행품1장) - 성가(79장 오늘도 도를 닦자)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40분) 2부 : 교화단 훈련 (50분)						
■ 주제 설교 : 성불에 족한 '일상수행의 요법' 말씀하시기를 [옛날 한 선비는 평생 소학(小學)만 읽었다 하나니, 우리는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법훈편 11장 말씀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정전 수행편1장입니다. 정전의 순서로 본다면 총서편은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밝히신 편이고, 교의편은 제생의세의 그 포부와 경륜을 실현할 교법의 원리를 밝히신 편이라면, 수행편은 그 교법을 우리가 실제 경계, 생활 속에 실천하여 성불하고 제중하는 법을 밝히신 편이라 하겠습니다. 그 수행편의 첫 번째 장이 바로 이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열반 직전 정전을 내어주실 때 솔성요론 3조에 있던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조목을 제1조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만큼 대종사님께서 정전의 각 순서를 얼마나 중히 여기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법의 결실이 되는 수행편의 첫 장이 되는 부분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내어주심은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못한다면 이는 수행에 있어서 대종사님의 제일 큰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의 원 제목은 ‘교강9조’였습니다. 우리 교법을 강령으로 종합한 9개 조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9개 조목에 교리 전체가 대체로 녹아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조목입니까? 그래서 평상시 늘 챙겨 실천할 요긴한 법이라는 의미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이라고 이름지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심법을 조사하면 대체로 이 9개 조목과 같으니 우리도 이 9개 조목을 날마다 항상 챙기고 습관들여서 부처님을 닮아가자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살펴보면 1~3조는 삼학, 4조는 팔조, 5조는 사은, 6~9조는 사요를 강령 잡아 실천하게 한 조목들입니다. 그래서 1~4조를 실천하게 되면 안으로 삼학공부와 신분의성의 추진으로 삼대력(대중화력), 즉 자력을 양성하게 되고 밖으로 그일 그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5조로 감사보은하면 안으로 대 감화력이 생겨나고, 밖으로 사은의 은혜, 즉 타력을 얻게 됩니다. 또 6~9조로 인류불공을 하고 보면 안으로 대균등력이 생겨나고, 밖으로 모두가 다 같이 성공하는 낙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이 일상수행의 요법은 안으로 삼대력을 양성하고 밖으로 원만평등한 대낙원을 이루는 큰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1장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만 외우지 말고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조목을 일일이 이렇게 대조하라 설명하시면서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이지는 경지에 까지 도달하라’ 하시면서 그 실천을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챙기도록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정하였고, 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기법까지 두어서 물샐틈없이 그 수행방법을 지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이처럼 강조하시고, 또 그것을 챙기는 방편을 몇 겹으로 두셨을까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여 수없이 챙기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법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종사님의 대자대비가 담긴 일상수행의 요법을 부지런히 실천하여 대종사님의 염원과 같이 하루속히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교무님 재량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상수행의 요법 각 조목을 설명할 수도 있다.)

- 오늘 법회 1부 끝나고 바로 이어서 2부 교화단 훈련 시간에 각단 단장님을 중심으로 일상수행의 요법 각 조목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교화단 훈련 : 나의 일상수행의 요법

1. 상호 인사

2. 입정

3. 일상수행의 요법 실천 상황과 유무념 조목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예) 이 시간에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평소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고, 각자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유무념 조목을 정하고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1) 세 칸의 공란을 가진 메모지와 사인펜을 단원들에게 나누어준다.

2) 첫 번째 칸에는 각자 평소 생활 속에서 일상수행의 요법 중에서 실천이 잘 되었던 조목 번호와 그 때의 경계를 써보게 한다. 다음 칸에는 실천이 안 잘 되었던 조목 번호와 그 경계를 쓰도록 한다. 마지막 칸에는 일상수행의 요법 중에서 어떤 조목을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일주일간 유무념 조목으로 삼아 실천해 볼 것인지 써보게 한다.(10~15분)

3) 각 단원들이 써 놓은 메모지를 추첨함에 넣고 단장이 처음 추첨하여 뽑은 사람부터 3분간 각자의 일상수행의 요법공부와 유무념조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3분간 설명을 잘한 단원은 단원 모두에게 법으로 복 지은 것이 됨을 강조하고, 또 그러한 취지에서 단원들의 투표로 소정의 선물이 있음을 안내한다.(동기유발)

4) 첫 번째 발표자는 단장이 추첨하고 그 다음 발표자는 발표한 사람이 추첨하도록 한다. 전체 발표가 끝나면 (추첨함 활용하여) 투표로 우수발표자를 선정하고, 단장이나 교무님이 마무리 멘트를 한다.

5) 카톡을 통하여 단원들이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유무념 실천사례를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교무님과 단장, 단원들은 댓글로 서로 북돋아 준다.

4.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일상수행의 요법 공부가 생활 속에서 살아나고

교화단원들이 이 훈련으로 서로 서로 공부를 북돋우는 상생의 법연을 맺어가기를 다짐합니다.

5. 폐식

기대효과	1. 일상수행의 요법의 뜻과 중요성을 알게 된다.
	2. 각 조목마다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실천 조목을 정하게 된다.
3. 단원들이 서로 공부를 공유하고 서로 챙기고 분별하는 계기가 된다.	

[신분검사] 프로그램

진행일시	0월 교화단 법회	소요시간	120분
진행장소	1부 : 대각전 2부 : 단별 모임 장소	진행자	교무, 단장(중앙)
기획의도	1. 자신의 시비선악을 알게 한다. 2. 마음의 주착한 바와 행동의 본말을 알게 한다. 3. 매년 기질변화가 되어 가는 정도를 알게 한다. 4. 자신이 얼마나 보은 작복을 하였는가 빚을 지고 살았는가 알게 한다. 5. 다음 해의 공부계획 자료를 얻게 한다.		
준비물	신분검사자료(교화훈련부 제공), 필기도구, 죽비, 목탁		

세부진행계획

■ 교화단훈련법회 식순

1부 : 개식 - 입장 - 영주 - 설명기도 -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법어 봉독(대산종사법어 제3 훈련편 38-40장) - 성가(90장 불문에 들어오니) - 설교 - 공지사항 - 폐식 (30분)
 2부 : 교화단 훈련 (90분)

■ 주제 설교 : 일 년의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신분검사법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식물은 생흔, 동물은 생흔과 영흔이 있는 반면, 인간은 생흔, 영흔, 그 위에 각흔이 있습니다. 이 각흔은 각은 바로 스스로를 돌아켜 깨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수행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공부법은 매일 일상수행의 요법으로 대조하며 경계마다 순간마다 깨치게 하고 밤에는 일기를 기재하며 하루를 돌아보면서 깨침을 얻게 합니다. 하루 하루가 쌓여 일년이 되지요. 연말에 일년을 돌아보며 깨침을 얻는 공부가 신분검사법입니다.

- 신분검사의 유래

소태산 대종사께서 1927년(원기12) 2월에 공부와 사업을 더욱 향상시키고 교단의 인사대우에도 활용하기 위해 공부인의 수행정도와 인격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당연등급, 부당등급, 수지대조를 통한 신분조사법을 제정 발표하여 시행했다.

- 대산종사님께서는 신분검사를

- 1) 자기가 자기를 성현 만드는 법이며
 - 2) 공부인이 자신의 시비선악을 알며 마음의 주착한 바와 행동의 본말을 알아 수양력·연구력·취사력을 얻기 위한 자기 점검법이며
 - 3) 공부를 하기 전과 공부를 한 후 또는 시작한 후 지난 해와 올해를 대조하여 기질변화가 된 점을 알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법문집 제3집 제4편 훈련 12. 신분검사)
 - 4) 당연등급의 점수는 올라갈수록 이롭고 내려갈수록 해로우며, 부당등급 점수는 올라갈수록 해가 되고 내려갈수록 이로우며,
 - 5) 수지대조에 대(貸)가 많으면 영생의 복락[저축]이 되고, 차(借)가 많으면 영생의 빚[채무]가 됩니다.
- 예화: 고급 식당에서 주방장 역할 중의 하나는 손님에게 음식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맛에 그리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식재료의 세세한 맛은 못 느낍니다. 그러나 무슨 재료가 들어갔는지 주방장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그 재료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신분검사의 의의: 평소에 생각없이 중생심으로 살던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 있는 인격의 긍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들을 짚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됨. 신분검사의 항목들은 우리의 인격 요소들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 신분검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등급, 부당등급, 수지대조
- 1) 당연등급은: 신심, 서원, 공심, 겸양, 통제, 무상, 인내, 신의, 전일, 지혜, 청렴, 학문, 기능, 효성, 진실, 은악양선, 심사결단, 주밀, 수시변역, 보시, 활동, 자비, 원만 등 23항목입니다.
 - 2) 부당등급은 삼십계문 범계 정도와 허위, 편심, 아상 등 33항목입니다.
 - 3) 수지대조는 한해의 수지대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복을 장만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얼마나 빚을 지고 살았는가를 알아보자는 것으로 수입, 지출, 대부(貸付), 차용(借用), 혜수(惠受), 혜시(惠施) 등에 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점검합니다.
- 오늘 법회 1부 끝나고 바로 이어서 2부 교화단 훈련 시간에 각단 단장님을 중심으로 일 년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금 불보살에 이르는 여정에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가늠해 보고 반성하며 내년의 공부계획을 다짐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교화단 훈련 : 신분검사표 기재

*훈련 전 유념사항

- 1) 단실이 방인 경우 앉은뱅이 책상이 있으면 유용할 것임.
- 2) 단장이 한 항목씩 설명하면서 기재하게 하는 것이 단원들이 항목마다 이해를 하며 검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3) 시간을 줄이려면 단장이 먼저 작성방법 전반을 설명하고 단원들이 안내서의 항목 설명을 보며 점검하게 함.
- 4) 단장훈련이 미흡하여 숙지가 안된 경우에는 전체가 모여 교무님이 한 항목씩 설명하면서 기재하는 방법도 있음.

1. 상호 인사

2. 입정

3. 신분검사표 기재

- 재가교도용 신분검사기재표와 안내서를 단원들에게 배부한다.
- 단장은 신분검사 요령 개요를 설명하고 당연등급 항목부터 하나씩 설명하고 기재표에 점수를 기재하게 함.
예) 먼저 당연등급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신심! 신심은 진리와 법과 스승과 이 회상을 믿는 마음입니다. 이 네가지 항목 각각에 대해서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기재하고 합산합니다.
- 부당등급 점검
- 수지대조 기재

4. 감상 및 다짐 발표

- 신분검사를 기재한 후 감상을 발표하게 함
- 자신이 몰랐었는데 알게된 점, 부족한 점, 내년의 공부계획 등의 내용을 발표

5. 설명기도

설명기도로 나날이 복락을 장만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매일 매일 진급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6. 폐식

기대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질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로를 알게 함. 2. 수행에 대한 분발심을 진작. 3. 보은행의 동기유발.
------	--

■ 첨부 2.

[완성된 교화단 법회 프로그램 교안]

원기 103년 교화단 법회

『불공하는 법』 훈련

* 훈련 목표

1. 처처불상의 이해
2. 사사불공의 이해
3. ‘부처 모시기’ 연습
4. ‘불공하는 법’ 연습

I. 처처불상의 이해

1. 나의 현재

- 처처불상 - 모두가 부처인 이유를 적어봅니다.

- 모두를 부처님으로 믿고 모시는 정도를 파악해 봅니다.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순	점 검 내 용	5점	4점	3점	2점	1점
1	나는 우주만유 모두가 부처님임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					
2	나는 나에게 불성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					
3	나는 모두에게 불성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					
4	나는 모두를 부처로 모시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처처불상의 개념

1) 처처의 개념

- 처처 = 모두 = 일체 = 우주 만유 = 천지 만물 + 허공 법계

*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대종경, 교의품4장)

2) 불상의 개념

- 불상 = 법신불
- 법신불의 작용 : 무한 은혜, 죄복 권능, 불성

3) 처처불상의 개념

- ①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 우주 만유는 곧 법신불의 응화신(應化身)이니,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處處佛像)이요, 일일이 불공법(事事佛供)이라, (정전, 불공하는 법)

- ②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이다.

*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대종경, 교의품14장)

*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대종경, 교의품4장)

*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대종경, 서품15장)

③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에서 구한다.

*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 승배와 일원상 승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나 이까.]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에 구하게 되며...] (대종경 교의품 12장)

④ 마음이 곧 부처이며, 성품이 곧 법이다.

* 일원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 하자는 것이요, (정산법어, 원리편 3장)

3. 처처불상의 내용

1) 일체 = 우주 만유 = 천지만물 + 허공법계 = 법신불의 응화신

● 모두가 부처(법신불)

= 일체가 부처(법신불)

= 우주 만유가 부처(법신불)

=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부처(법신불)

● 우주 만유

= 천지 만물 + 허공 법계 = 일체

=> 법신불의 응화신

2) 법신불과 나와의 관계

● 법신불은

= 법신불의 응화신인 우주 만유는

= 천지 만물 허공 법계는

① 은혜불 :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부처님 (정전 사은)

② 권능불 :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의 부처님 (대종경 교의품 8장)

③ 자성불 :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성품이 법인

자성의 부처님 (법어 원리편 3장)

3) 일원상 진리와 처처불상의 관계

● 일원상 승배, 일원상 신앙은

-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모시는 것이다. 처처불상이다.

- * 법신불 일원상의 이치를 깨치어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숭배하며, 성공의 기한 구별도 분명하며, 죄복의 근원처를 찾아서 불공하므로 무슨 서원이든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 한 분만 부처로 모실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하자는 것이니라. (대종경, 교의품14장)
- *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운이요, 사운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대종경, 교의품4장)

II. 사사불공의 이해

1. 사사불공의 개념

1) 사사의 개념

- 사사 = 일마다 = 육근동작의 일체
 - = 육근이 육경을 대상으로 작용하는 것
 - = 대상을 향한 의지적 작용

2) 불공의 일반적 개념

- 불공 : 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또는 그런 일. (국립국어원 사전)

3) 원불교 불공의 개념

- 불공 : 부처님으로 모심
 - => 부처님 = 우주 만유 전체가 부처님
 - => 우주 만유 전체를 부처님으로 모심

① 은혜불 : 우주 만유 전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부처님으로 모심 (정전 사은)

② 권능불 :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의 부처님으로 모심 (대종경 교의품 8장)

③ 자성불 : 우주 만유 전체가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며 성품이 법인

자성의 부처님으로 모심 (법어 원리편 3장)

4) 보은 즉 불공

- 감사, 공경, 사랑 -> 보은 = 불공

① 은혜의 부처님께 : 늘 감사하고 보은하는 것이 불공

감사의 마음 없이 보은 없고,
보은 없이 불공 없다.

② 권능의 부처님께 : 늘 공경하고 보은하는 것이 불공

공경의 마음 없이 보은 없고,
보은 없이 불공 없다.

③ 자성의 부처님께 : 늘 사랑하고 보은하는 것이 불공

사랑의 마음 없이 보은 없고,
보은 없이 불공 없다.

2. 사사불공의 방법

1) 불공을 올리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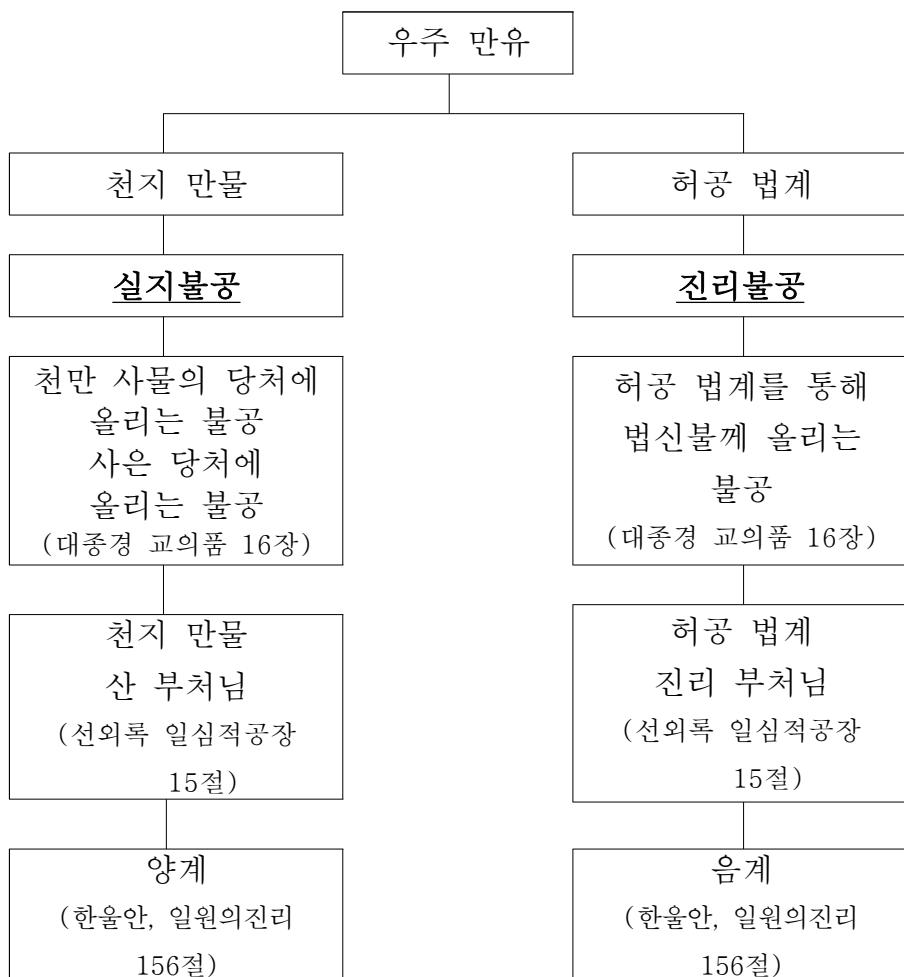
- 죄복과 복락을 구하기 위함 (대종경 교의품 4장)

2) 불공을 누구에게 올리나?

- 처처불상 = 우주 만유 = 법신불의 응화신
=> 법신불의 응화신인 우주만유의 부처님께...
- 죄복과 고락의 근원처에...
- 천만 사물의 당처에...(대종경 교의품 5장)
- 사은 당처에...(대종경 교의품 16장)

- 허공 법계를 통해 법신불께...(대종경 교의품 16장)

3) 불공의 방법 두가지



4)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의 관계

-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은 아울러야 성공한다.

- * "실지 불공은 천지 만물의 양계에 하는 것이요, 진리 불공은 허공 법계의 음계에 하는 것이니 이를 아울러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원만히 되리라." (한율안, 일원의진리 156절)
- * 진리 불공만 있고 실지 불공이 없으면 기복으로 떨어지고, 실지 불공만 있고 진리 불공이 없으면 처세에 그친다. (좌산상사, 믿음대로 산다)

III. 실지 불공(불공하는 법) 연습

1. 처처불상 연습

1) 처처불상 발견하기

- 옆 사람의 이름을 적고, 진심을 담아 말해줍니다.

은혜불	()는 나에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부처님입니다.
권능불	()는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의 부처님입니다.
자성불	()는 나와 같이 불성이 깊어있는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 가장 가까운 인연들의 이름을 적고, 진심을 담아 외워봅니다. (예: 자녀, 부모)

나의 인연	부처인 이유	
	은혜불	()는 나에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부처님입니다.
	권능불	()는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의 부처님입니다.
	자성불	()는 나와 같이 불성이 깊어있는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은혜불	()는 나에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부처님입니다.
	권능불	()는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의 부처님입니다.
	자성불	()는 나와 같이 불성이 깊어있는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은혜불	()는 나에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부처님입니다.
	권능불	()는 나에게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의 부처님입니다.
	자성불	()는 나와 같이 불성이 깊어있는 자성의 부처님입니다.
	은혜불	()는 나에게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의 부처님입니다.

2) 부처님 바라보기 연습 (1주일간 번수체크)

- 하루 중 상대하는 모든 사람 – ‘부처님!’하고 되뇌어 본다.
- 단, 반드시 원근친소와 시비이해를 떠나야 한다.

날짜							
변수							

2. 죄복의 권능 알기

-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1건만 생각해 본다)
- 그 복은 어떤 결과로 생긴 것인가?
- 그 복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은 누구(무엇)인가?

-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죄벌은 무엇인가?
- 그 죄벌은 어떤 결과로 생긴 것인가?
- 그 죄벌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은 누구(무엇)인가?

받고 있는 복	그 복은 어떤 결과인가?	그 복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

받고 있는 죄벌	그 죄벌은 어떤 결과인가?	그 죄벌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

- 위의 표를 통해서 죄와 복을 지은 사람은 나 자신이지만 죄와 복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은 바로 내 앞의 상대임을 확인한다.

3. 영원한 복을 위한 불공 계획

- 받고 있는 복이 계속되는 복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에게 어떻게 불공을 해야 할까요?

- 받고 있는 죄별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려면

그 죄별을 실질적으로 준 사람(사물)에게 어떻게 불공을 해야 할까요?

- 위 사례에서 일의 성질과 기한에 따라 불공을 세밀히 계획해 봅니다.

죄복의 근원처	
대상(일)의 성향	
불공의 기한(언제까지)	
불공의 기한(어떻게 될 때까지)	
진리불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과제

법명 : _____

1. “공경합니다, 부처님!” 표현 공부

- 하루 중 상대하는 모든 사람 - 부처님으로 바라보기 연습
- 상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 ‘공경합니다. 부처님!’하고 되뇌어 본다.
- 단, 반드시 원근친소와 시비이해를 떠나야 한다.
- 1주일간 번수를 체크해 본다.

날짜							
번수							

2. 죄복 근원처에 실지불공 계획하기 1

- 한주 동안의 죄별 또는 복을 1건 발견해 봅니다.
- 죄복의 근원처를 발견해 봅니다.
- 죄별이 발견되면 : 바로 그 대상에게 불공 - 죄가 복이 되도록 계획
- 복이 발견되면 : 바로 그 대상에게 불공 - 계속 복이 되도록 계획

죄벌 또는 복 사례 발견하기	
죄복의 근원처 발견하기 (권능의 부처님)	
죄가 복이 되도록 불공 계획 세우기 계속 복이 되도록 불공 계획 세우기	
진리불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3. 죄복 근원처에 실지불공 계획하기 2

- 위 사례에서 일의 성질과 기한에 따라 불공을 세밀히 계획해 봅니다.

죄복의 근원처	
대상(일)의 성향	
불공의 기한(언제까지)	
불공의 기한(어떻게 될 때까지)	
진리불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4. 죄복 근원처에 실지불공 실행하기

- 위 사례의 계획표에 따라 실지불공을 실행한 후 감상을 적어보세요.

■ 첨부 3.

[완성된 교화단 법회 프로그램 동영상]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추후 발송해 드립니다.